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학술 컨퍼런스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미래적 향방

2019년 12월 14일(토) 13:00-17:00

성산아트홀 2층 다목적실

발 행 인_ (재)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발 행 처_ (재)창원문화재단

발 행 일_ 2019.12

총괄운영_ 창원조각비엔날레추진팀



학술 컨퍼런스 -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미래적 향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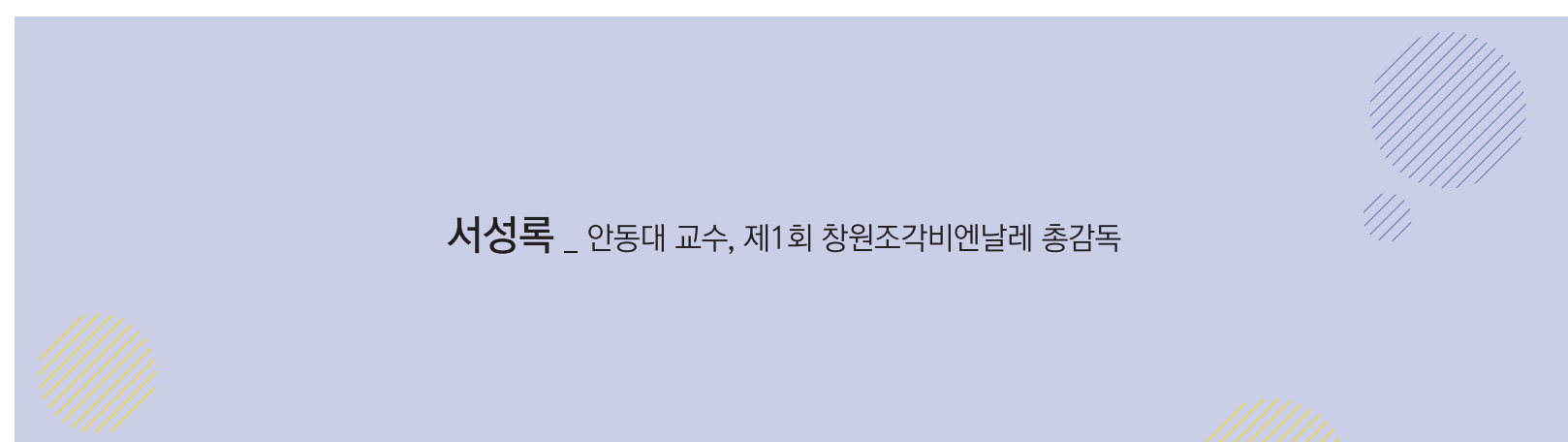
•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13:00-17:00 • 장소 : 성산아트홀 2층 다목적실

시간	프로그램 내용	발제자
13:00~13:30	개회	
13:30~13:55	발제 1 제1회 2012비엔날레 - 꿈꾸는 섬	서성록 _ 안동대 교수, 제1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13:55~14:00	질의	황무현 _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장
14:00~14:25	발제 2 제2회 2014비엔날레 - 달그림자	최태만 _ 국민대 교수, 제2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14:25~14:30	질의	김성호 _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14:30~14:40	휴식	
14:40~15:05	발제 3 제3회 2016비엔날레 - 억조창생	윤진섭 _ 미술평론가,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15:05~15:10	질의	이상헌 _ 마산미술협회 회장
15:10~15:40	발제 4 제4회 2018비엔날레 - 불각의 균형	윤범모 _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제4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15:40~15:45	질의	강주연 _ 창원미술협회 회장
15:45~15:55	휴식	
15:55~17:00	종합토론	



제1회 2012창원조각비엔날레 꿈꾸는 섬

서성록 _ 안동대 교수, 제1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제1회 2012창원조각비엔날레 - 꿈꾸는 섬

서성록(2012' 총감독/ 안동대 교수)

제1회 창원조각비엔날레가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의 돌섬 유원지에서 개최되었다. 이곳은 육지에서 1.5km 떨어진 섬으로 여객선을 타면 10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창원시민들의 쉼터로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제1회 창원조각비엔날레는 2011년 11월에 가진 첫 모임에서 15인의 위원들의 투표로 위원장에 고(故) 김봉구 교수(이화여대)와 부위원장 김청정 교수(신라대)를 선임한 다음 규정 심의를 통해 “창원조각비엔날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였다. 다음 회의에서는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규정에 명시한 대로 소위원회(김봉구, 박석원, 김청정)를 구성하고, 총감독을 선임하였으며, 총감독은 수석큐레이터로 이대형씨(전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 Hzone 대표)를 영입하였다.

행사는 11개월간의 길지 않은 준비기간을 갖고 개최되었다.

추진 일정

- 2011. 11 :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위원회 개최
- 2011. 11 :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 운영 총감독 선정과 소위원회 구성
- 2011. 12 : 관련 조례 개정, 2012. 1~2월 시의회 승인
- 2012. 1~3 : 창원조각비엔날레 작품설치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착공
- 2012. 3 : 주제 선정
- 2012. 1~4 : 초대 작가군 검토, 섭외, 스튜디오 방문
- 2012. 5~6 : 참여 작가 선정(작가선정, 드로잉 검토와 수정, 재검토)
- 2012. 7~9 : 작품제작
- 2012. 10.1~20 : 기반공사, 작품운반 및 작품 설치(같은 기간에 현장 작업 따로 진행)
- 2012. 10.26~11.25 : 창원조각비엔날레 개막
- 2012. 10.27 : 학술 심포지엄 개최
- 2012.11-12 : 행사 평가

출품 작가들은 전시가 열리는 돌섬을 사전답사하고 이곳에 맞는 작품들을 준비해왔다. 돌섬(월영도)은 옛날 가락왕의 총애를 받던 미화가 나들이를 나왔으나 환궁치 않고 피해 있다가 금빛 도아지로 변하여 정착했다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지리적으로 돌섬은 사철 싱그러운 옥색 파도가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하는 해상 유원지로 필자는 풍부한 자연과 서사가 깃든 공간에 예술이 짝을 이루는 '꿈꾸는 섬'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꿈꾸는 섬'이란 주제에는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자유를 꿈꾸며 내일을 기약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주제에 내포된 의미를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술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잠자는 상상력을 깨우고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환기하며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뻔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 쉽지만, 사실 예술의 그런 역할마저 없다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에른스트 비허르트(Ernst Wiechert)의 『잃어버린 별』(Der verlorene Stern)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동경의 별'이 사라진 세상이 얼마나 암울한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다. 인간에게 꿈이 사라진다면 인생의 지향점이나 의욕도 느끼기 힘들게 된다. 꿈을 잃어버린다면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우물의 돌레가 하늘의 크기라고 속단한다. 그들은 삶을 그저 달력의 빼곡한 숫자, 그리고 그것을 의미 없는 배열처럼 여기고 피상적으로 살아갈 따름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동경은 원래의 자리에서 크게 빛나가 있다. 주디스 윌리엄슨(Judith Williamson)의 말처럼 미디어가 제공하는 외양(appearance)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한다. 우리는 광고 이미지를 보고 광고가 안내하는 아름다운 세계로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윌리엄슨은 미디어에서 제시된 세계를 자기 자신의 세계와 동일시하는 것을 '거울 이미지'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꿈은 신기루와 같이 헛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고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거울 이미지와 같은 것으로 여겨선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거짓 환상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어 아직 가보거나 느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부추긴다. 설사 직접 가보지는 못한다 해도 그리움

으로 그것을 향유하는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꿈은 가까이 있으면서 실현되지 않아 더 큰 갈망을 재촉한다. 그러므로 점점 더 빛을 잃어가는 꿈을 돌아보는 것은 실낱같은 본원적인 갈망을 찾아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 행사의 주제 '꿈꾸는 섬'은 '동경'(Sehnsucht)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탄수화물만치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전시의 출품 작가는 국내작가 15명과 해외작가 5명이 참가하였다. 원래 계획은 30여명으로 예상했으나 이대형 수석 큐레이터와 함께 섬을 둘러본 결과 장소의 여건 상 20명 선이 적당하다는 판단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참여작가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전시 구성은 국내 작가들이 참여한 본 전시와 해외 작가들이 마련한 특별전으로 나누었으나 참여 작가의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본 전시와 특별전을 나눈다는 자체가 큰 의미는 없었다. 그리고 모든 출품 작가들의 소개와 작품 개요, 제작과정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드로잉전이 방치되었던 돌섬의 시설을 이용해 나누어 열렸다.

우선 본 전시는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작가들이 참가하였는데 참여 작가로는 김병호, 김상균, 김영섭, 김주현, 김태수, 김황록, 노준, 서정국, 신치현, 안규철, 안병철, 정명교, 정현, 최태훈, 황영애 작가가 있으며, 이들 총 15명의 작품들이 각각 출품되었다. 출품작은 먼저 작가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장소를 선정하고 그에 걸맞은 작품 드로잉을 제출하면 이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자연적 형태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작가로는 안병철과 황영애, 김주현과 김태수가 있고, 자연 자체 또는 자연이 주는 풍성함에 주목하는 작가로는 서정국, 정명교, 김황록, 김영섭 등이, 관객의 참여를 중시하는 작가로는 정현, 안규철, 김병호, 노준 등이 포함된다. 그러가 하면 시간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더듬어가는 작가로는 김상균, 최태훈, 신치현 등이 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돌섬의 자연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돌섬의 설화에 걸맞은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전에서는 해외 작가 제임스 홉킨스(James Hopkins, 영국), 제임스 앵거스(James Angus, 호주), 미셸 드 브로인(Michel de Broin, 캐나다), 카즈야 모리타(Kazuya Morita, 일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 멕시코)가 초청되었다. 그 가운데 데이비드 브룩스는 지하에 실제의 트랙터를 설치해 문명의 발달과 그 뒷안길을 조명하는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사치 갤러리를 통해 주목 받는 영국의 조각가 제임스 홉킨스는 국제도시 창원을 상징하는 지구본을 제작하되 거울처럼 주위를 반사하는 것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왕성하게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미셸 드 브로인은 유원지의 성격에 맞게 5미터 규모의 거대한 계단 구조물을 통해 아이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 카즈야 모리타는 침성대처럼 벽돌을 쌓아 만든 돔형의 쉼터를 조성하여 돌섬을 찾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전시하였다.

행사 기간에는 본 행사의 주제를 토픽으로 국내외의 인사들을 초대하여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대형 수석큐레이터의 진행으로 열린 학술세미나에는 서성록 총감독이 "꿈꾸는 조각"을 발제한 후, 국제미술평론가협회장을 역임한 영국의 헨리 휴스(Henry Meyric Hughes)는 "조각공원, 유토피아, 창원조각비엔날레 그리고 역사적 선례들"을, 일본의 미술평론가 치바 시게오(Chiba Shigeo)의 "조각을 재조명하며 - 100년 전의 문제제기", 김이순 홍익대 교수의 "관람자와 소통을 꿈꾸는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를 각각 발표하였다. 발제자들은 비엔날레를 둘러본 후 이번 비엔날레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민이 만들어가는 작품, I-Book과 홈페이지 등 참여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각 작품에 QR코드를 넣어 이해를 도모하고, 특별전시실에는 각 작품의 설명과 드로잉 등을 전시하였다. 정명교 작가가 만든 배 모형에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소망과 꿈을 적어 넣도록 했는데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행사의 큰 어려움은 작품재료나 조립단계만 남긴 작품을 섬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이것을 위해 선박을 빌려야 했고 물때에 맞추어 절호의 순간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날을 D 데이로 잡았으나 조수간만의 차와 실 새 없이 쇄도하는 파도로 인해 선박장과 운반선의 높이를 정확히 맞추는 일은 말처럼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필자처럼 물때에 대해 무지한 내륙의 사람에게 왜 그 일이 까다로운지 몰랐었다. 어렵사리 선박에서 내려 몇 톤이나 되는 작품을 산기슭으로 옮길 때는 마음이 외줄 타기를 하는 것처럼 간당간당했다.

끝으로 행사를 빛내준 참여 작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스테프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하고 싶다.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나 무탈하게 행사를 치러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자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작가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초대된 작가들이 훌륭한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주었다. 노구를 이끌고 기꺼이 와준 헨리 휴스가 "한국의 창원에서 소규모이지만 알찬 비엔날레를 보게 되어 기쁘다"는 말에 지난 몇 개월의 피곤이 눈 녹듯 싹 가시는 듯했다.



제1회 창원조각비엔날레 - 꿈꾸는 섬

서성록(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추진 일정

- 2011. 11 :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 개최
- 2011. 11 : 2012 총감독 선정과 소위원회 구성
- 2011. 12 : 관련 조례 개정, 2012. 1~2월 시의회 승인
- 2012. 1 ~ 3 : 작품설치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착공
- 2012. 3 : 주제 선정
- 2012. 1 ~ 4 : 초대 작가군 검토, 섭외, 스튜디오 방문
- 2012. 5 ~ 6 : 참여 작가 선정(작가선정, 드로잉 검토와 수정, 재검토)
- 2012. 7 ~ 9 : 작품제작
- 2012. 10.1 ~ 20 : 기반공사, 작품운반 및 작품 설치(같은 기간에 현장 작업 따로 진행)
- 2012. 10.26 ~ 11.25 : 개막
- 2012. 10.27 : 학술 심포지엄 개최

배경설명

- 돌섬(월영도)은 옛날 가락왕의 총애를 받던 미희가 나들이를 나왔으나 환궁치 않고 피해 있다가 **금빛 도야지**로 변하여 정착했다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곳.
- 지리적으로 돌섬은 사철 싱그러운 옥색 파도가 어우러진 **해상유원지**로 풍부한 자연과 서사가 깃든 공간에 예술이 짝을 이루는 '**꿈꾸는 섬**'을 마련해 보고자 함.

- 예술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잠자는 상상력을 깨우고 창조질서의 아름다움을 환기시키며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뻔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 쉽지만, 사실 예술의 그런 역할마저 없다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에른스트 비허르트(Ernst Wiechert)의 <<잃어버린 별>>(Der verlorene Stern)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동경의 별’ 이 사라진 세상이 얼마나 암울한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다.
- 인간에게 꿈이 사라진다면 인생의 지향점이나 의욕도 느끼기 힘들게 된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우물의 둘레가 하늘의 크기라고 속단한다. 그럴 경우 그들은 삶을 그저 달력의 빼곡한 숫자, 그리고 그것을 의미 없는 배열처럼 여기고 피상적으로 살아갈 따름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동경은 원래의 자리에서 크게 빗나가 있다. Judith Williamson의 말처럼 미디어가 제공하는 외양(appearance)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고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한다.

우리는 광고 이미지를 보고 광고가 안내하는 아름다운 세계로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Williamson은 미디어에서 제시된 세계를 자기 자신의 세계와 동일시하는 것을 ‘거울 이미지’라 불렀는데 여기서 꿈은 신기루와 같이 헛된 것이 되어 버린다.

우리는 순수하고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거울 이미지와 같은 것으로 여겨선 안될 것이다. 그것은 거짓 환상에 빠진 인간을 견져내어 아직 가보거나 느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부추긴다. 설사 직접 가보지는 못한다 해도 그리움으로 그것을 향유하는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꿈은 가까이 있으면서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더 큰 갈망을 재촉한다. 그러므로 점점 더 빛을 잃어가는 꿈을 돌아보는 것은 실낱같은 본원적인 갈망을 찾아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 행사의 주제 ‘꿈꾸는 섬’은 ‘동경’(Sehnsucht)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탄수화물만치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착안된 것이다.

참여 작가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전시 구성은 국내 작가들이 참여한 본 전시와 해외 작가들이 마련한 특별전으로 나누어 개최.

본 전시에는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작가들이 참가하였는데 참여 작가로는 김병호, 김상균, 김영섭, 김주현, 김태수, 김황록, 노준, 서정국, 신치현, 안규철, 안병철, 정명교, 정현, 최태훈, 황영애 작가 등 15명이며, 특별전의 작가로는 제임스 홉킨스(영국), 제임스 앵거스(호주), 미셸 드 브로인(캐나다), 카즈야 모리타(일본) 등이 초청.

출품작

출품작은 지리적 특성과 친환경적 측면, 그리고 관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중요시한 작품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소리나 빛, 바람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스테인리스 스틸, 청동, 화감암같은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조각의 정체성을 고수.

작가선정기준

- 돌섬의 친환경적 환경을 조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작가
- 빛과 소리, 바람 등 비물질적인 요소를 포용하는 작가
- 관객과의 소통 또는 친밀한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작가
- 행사가 끝나더라도 작품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반영구성을 갖춘 작품
- 트렌디한 경향이나 개념의 유희보다는 장소성과 수용자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작가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2**



- | | | | |
|---|---|---|--|
| <p>1 안영배 MYEONGBAEK HONG
 불망사자상 <i>Dumnyang - Bear</i></p> <p>2 박태준 TAE HOON CHOI
 시간의 굴레 <i>Sea of Time</i></p> <p>3 임 원 I HUAN CHUNG
 숲의 울림 <i>Forest of Sound</i></p> <p>4 안근철 KIM GUN CHEOL
 하늘과 땅과 바람 <i>Sky, Light, and Wind</i></p> <p>5 김우현 JOO HYUN KIM
 꽃 <i>Flower</i></p> | <p>6 안병호 BANG HYO HO
 기묘한 선생의 확장 <i>Twelve-Oh Street Propagations</i></p> <p>7 서준익 SEO JUN IK
 바람의 굴기 <i>Storm of Life</i></p> <p>8 김사현 CHUN HYUN SEON
 바람 먼 길 <i>Walking Man - PJ</i></p> <p>9 김현주 KIM HYUN JU
 복은 산 연애 <i>복재로품 EUD FADOM - Jarred Blossom</i></p> <p>10 제임스 헝거슨 JAMES HUNGERSON
 파도선의 압축의 확장 <i>Compressed Paraline Expansion</i></p> | <p>11 김진관 KIM JIN KWAN
 2012_기묘한 방 <i>Artificial Paradise 2012_Room of Memories</i></p> <p>12 임원희 LIM WON HEUI
 사라지는 것들 <i>The Dreams of Things - Disappearing Things</i></p> <p>13 카즈미 요시타케 KAZUMI YOSHITAKE
 바람의 연인 <i>Wind Peal</i></p> <p>14 미셸 드 브로던 MICHEL DE BRODON
 인공물 <i>Interstice</i></p> <p>15 제임스 홉킨스 JAMES HOPKINS
 지반 <i>Gravel</i></p> | <p>16 데이비드 브룩스 DAVID BROOKS
 개안 된 이 거문 <i>Mischance in the Garden</i></p> <p>17 양민재 YANG MIN JAE
 숲의 리듬 <i>Rhythm of the Forest</i></p> <p>18 안병철 BANG BYUNG CHEOL
 빛의 반사 <i>Light Reflection</i></p> <p>19 김진성 KIM JIN SEUNG
 2012 <i>Homogeneity 2012</i></p> <p>20 이준 I JUN
 물위에 걸려서 수영 <i>On and Under the Water</i></p> |
|---|---|---|--|



안병철 생명-영(影) (2012 stainless steel, obsidian 305×82×350cm)



황영애 자연의 숨결 (2012 granite stone 192×105×300cm)



김주현 꽃 2012 stainless steel 200×170×330cm



김태수 흐르는 생태-피어오름 2012 stainless steel, urethane paint 303×130×260cm



서정국 생명의 줄기 (2012 stainless steel 380×350×360cm)



정명교
물잠자리-휴(休)
2012
stainless steel 640×270×440cm



김환록, 사물의 꿈-사라지는 것들 (2012 stainless steel, bronze 244×20×500cm)





김영섭 동질성-2012 2012
stainless steel, bronze
120×120×500cm





안규철, 하늘과 빛과 바람 (2012 stainless steel, aluminum, urethane paint 320×320×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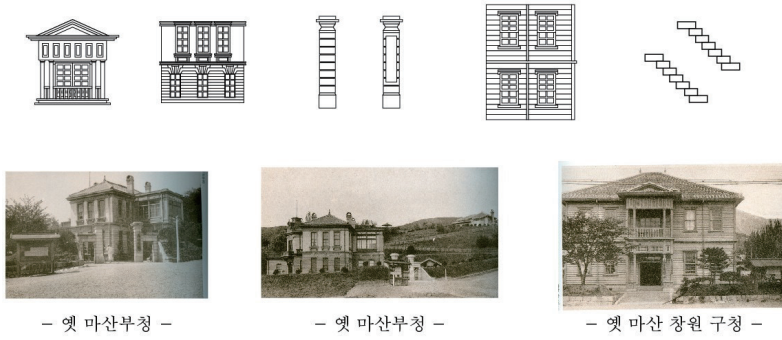


김병호, 21개의 조용한 확장 2012 paint on stainless steel 600×113×280cm



노준, 물위의 클로와 수키 2012 urethane paint on stainless steel 300×160×180cm

A안,B안에 사용되는 여러 이미지 샘플.



- 옛 마산부청 -

- 옛 마산부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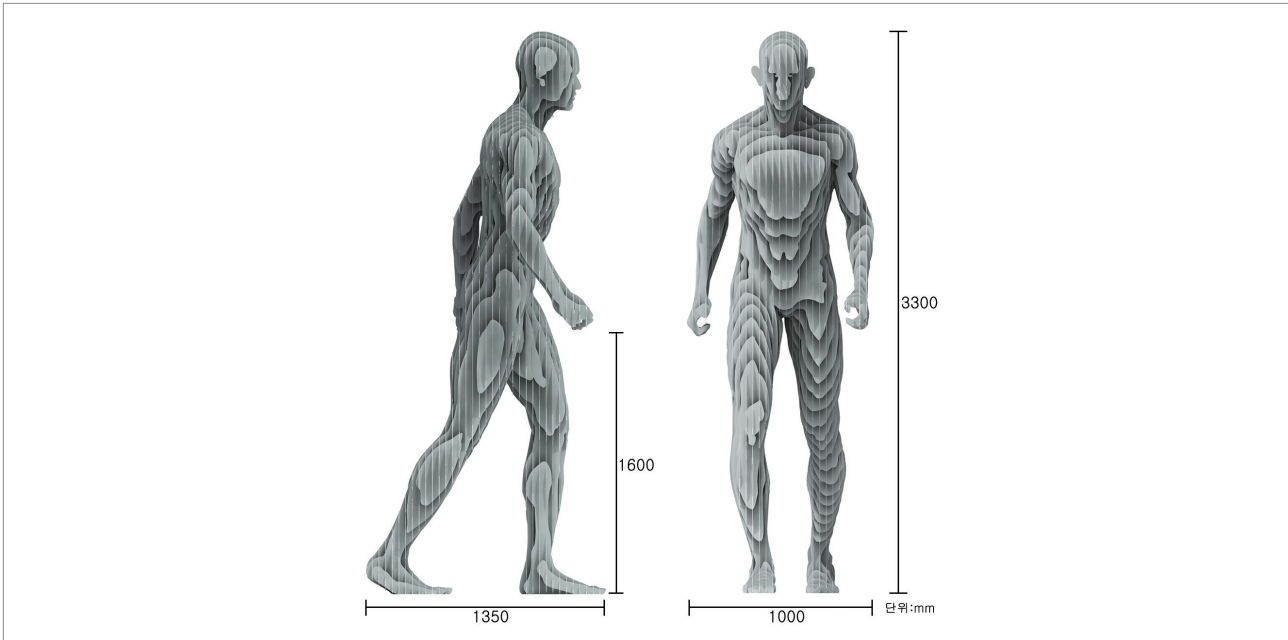
- 옛 마산 창원 구청 -

- 기초자료 -

김상균 인공낙원 2012-기억의 방 (2012 concrete with grouting method 120×120×500cm)



최태훈 시간의 흔적 (2012 stainless steel 270×700×300cm)





제임스 홉킨스 지구본 (2012 stainless steel 230×200×320cm)



제임스 앵거스 파이프라인의 압축과 확장
(2012 epoxy primer on steel 350×280×165cm)



미셸 드 브로인 인터레이스 (2012 bricks steel, cement 701×627×427cm)



카즈야 모리타, 벽돌더미
(2012 bricks, wood, cement
330×330×450cm)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12.10.27, 경남도립미술관, 진행 이대형 수석큐레이터

서성록교수 총감독, “꿈꾸는 조각”

헨리 휴스(Henry Meyric Hughes), 전 국제미술평론가협회장

“조각공원, 유토피아, 창원조각비엔날레, 그리고 역사적 선례들”

치바 시게오(Chiba Shigeo) 미술평론가

“조각을 재조명하며 - 100년 전의 문제제기”

김이순 홍익대 교수, “관람자와 소통을 꿈꾸는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 기타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운영

E-Book

홈페이지

QR 코드 활용

특별전시실 운영

작가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

해외의 평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비엔날레

- “눈여겨 볼 점은 이번 비엔날레가 최근 유행하는 트렌디한 멀티미디어 설치작품이 아닌 **관객과 환경 그리고 작품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을 독특한 조각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 자연환경과 소통해야한다는 숙제와 비엔날레 기간이 끝나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한다는 숙제는 **조각가들로 하여금 더 진지하게 작품을 제작하게 만들었다.** 이는 여타 다른 현대미술프로젝트가 보여주지 못했던 진지함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비엔날레 (Richard Vine, 아트 인 아메리카 편집장)

-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이 아닌 지역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직접 찾아나서는 예술의 공익성도 주목된다.”

Thomsa Arnond, (매리분 갤러리 디렉터)

- “다른 비엔날레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비전은 결코 작지 않다. 예술과 자연을 결합시키려는 비전은 친환경 도시 창원시의 정체성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

혁신(Innovation)의 재정의 (Iona Whittaker, 프래쉬 아트 편집장)

- “너무나 많은 현대미술이 일시성을 보이고 현재를 불완전성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예술은 한시적인 컨디션에 의한 반복되는 프레임에 갇힌다. 전시와 그 뒤 이어지는 또다른 전시의 네트워크속에서 순간적인 관심의 연속이 현대미술의 의미를 가두고 있다. ‘혁신’이란 용어가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몰아냈고, 지속가능한 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

- 이런 현대미술의 한시성을 극복하고 있는 창원조각비엔날레는 20명의 조각가의 작품 20점을 견고하게 보여준다. 화이트 큐브에 갇혀 있어 예술품을 자연속에서,야외에서 본다는 즐거움은 ‘왕의 귀환’ 처럼 반갑게 다가온다.”

이들 작품들은 지속가능성과 관객,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가치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지속 가능한 가치야 말로 현대미술에서 말하는 ‘혁신’이다.

서성록의 발제 ‘2012창원조각비엔날레’에 대한 질의

황무현(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장)

제1회 창원조각비엔날레 - 꿈꾸는 섬에 대한 서성록 발제자님의 주제의식과 진행과정에 경의를 보냅니다. 그리고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 '꿈꾸는 섬'은 '동경'(Sehnsucht)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탄수화물만치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착안한 것이며, 그것이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자유를 꿈꾸며 내일을 기약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현대 미술제라고 할 수 있는 비엔날레는 현대미술에서 새로운 사조를 예감측정하고, 비평논의를 확산시키며, 동시에 활성화한다는 기능과 역할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조각비엔날레는 2010년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출발함으로 그 목적과 성격으로 인한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 비엔날레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조각공원 조성에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소 비엔날레 난립의 문제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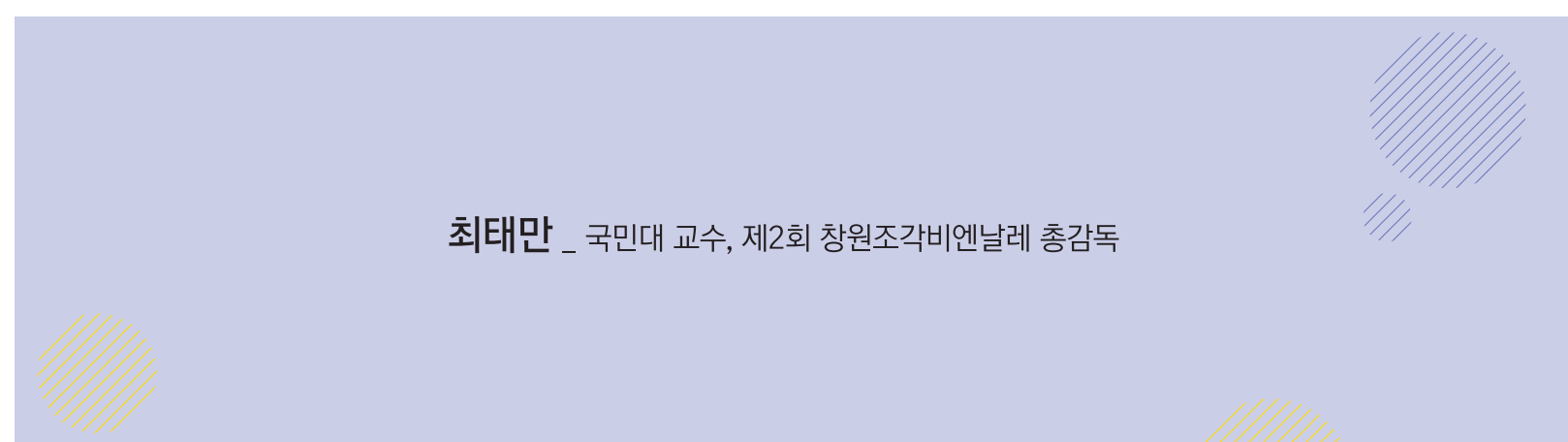
발제자님께서서는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정체성을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국제 현대 미술제의 성격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자님께서서는 제1회 총감독으로서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미래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2회 2014창원조각비엔날레 달그림자

최태만 _ 국민대 교수, 제2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제2회 2014창원조각비엔날레 - 달그림자

최태만(2014' 총감독/ 국민대 교수)

1. 개요

2014창원조각비엔날레는 '달그림자(月影)'를 주제로 2014년 9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46일간 돌섬·마산항 중앙부두·문신 미술관·창동 및 마산합포구 원도심 일대에서 열렸다. 국고 5억과 시비 11억이 투입된 이 비엔날레는 최태만 총감독과 김지연 큐레이터의 기획으로 아시아의 10개국에서 42명(팀)의 작가가 참가했다.

2. 주제 “달그림자(月影)”

“달이 온 세상을 비추고 예술은 달그림자처럼 세상 속으로 스며든다.”

내가 총감독으로 선임된 후 마산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마산역 앞의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조형물이었다. '가고파'로 유명한 이은상 시인에 대한 시민단체의 각기 다른 입장을 확인하고 나는 무엇보다 먼저 마산부터 공부하고자 했다. 일제 강점기 때 형성된 도시의 지형으로부터 3.15부정선거에 대한 마산시민들의 항거, 몽고간장 유적지, 산업화시대의 유산에 이르기까지 마산은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비엔날레를 단지 동시대 미술의 축전으로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창원조각비엔날레를 여타 비엔날레와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를 고민한 나는 후자, 특히 '마산 읽기'와 지역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래서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선생이 말년에 지금의 마산인 합포에 머물며 세운 월영대(月影臺)와 무학산과 돌섬에 남아 있는 최치원 설화에서 착안하여 주제를 '달그림자'로 정했다. '달그림자'는 최치원은 물론 그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마산에 바치는 오마주이며 이 용어가 암시하는 낭만적이고 문학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동시대 예술이 지향하는 '삶 속으로 스며드는 예술'에 대한 메타포로 채택했다. 아울러 이 주제는 2014창원조각비엔날레의 방향과 목표를 함축하는 것이었다. 마치 하나의 달이 세상을 비추듯이 “달그림자”는 예술이 마산 앞바다에 내려앉은 달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치도록 할 수는 없을까 하는 희망을 상징한다. 따라서 “달그림자”는 덧없이 사라져버릴 그림자를 좇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우리 현실에 연결된 예술을 추구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 추진방향

- 국제적 수준의 비엔날레에 접근
- 창원조각비엔날레의 고유한 정체성 구축
- 2014 창원조각비엔날레를 창원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 창원조각비엔날레를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로 정립
- 아시아의 독특한 조각비엔날레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
- 청년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험적이고 개방적인 비엔날레로 유도

4. 전시장소

1) 돌섬

기존의 설치작품 외에 더 이상의 영구설치 작품을 추가하지 않는 대신, 버려지거나 방치된 건축구조물을 생태환경복원의 차원에서 관람객의 쉼터로 재구성하고, 마산의 역사와 문화,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작품과 건축적 기능을 갖춘 조형물을 배치하여 관조의 대상으로서 조각보다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2) 마산항 중앙부두

마산항 중앙부두를 2014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메인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공미술 성격의 조형물과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작품으로 설치함으로써 중앙부두 일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쉼터이자 산책로인 중앙부두를 전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3)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동시대 아시아 미술의 흐름과 특징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조각과 설치, 마산의 역사와 도시적 성격을 볼 수 있는 미디어아트

를 전시하여 시민들의 예술 향유권을 신장하고자 했다.

4) 창동예술촌과 추산동 일대

조각이란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재생과 공동체 미술을 지향하는 다양한 동시대 미술을 원도심 곳곳에 설치하여 비엔날레의 특징을 강화하고자 했다.

5. 참가작가

• 국내작가

강영민, 권민호, 김월식, 김형수, 박경주, 박승모, 배달래, 옥정호, 이은우, 이원호, 이정희, 임옥상+승효상, 은주+한량맨션, 정만영, 정혜련, 조전환, 천경우, 천대광, KKH(강지윤+장근희), Flo Maak+CUPhoto, 한원석, 허태원

• 국외작가

차이지송(Cai Zhisong, 중국), 인쉬젠(Yin Xiuzhen)+송동 가족(중국), 왕중(Wang Zhong, 중국), 취이센지(Cui Xianji, 중국), 리짚양(Li Zhanyang, 중국), 쉬레야스 카르레(Shreyas Karle, 인도), 안자나 체티(Anjana Chetty, 인도) 하르샤(N.S. Harsha, 인도), 쩌 루엡(Tran Luong, 베트남), 나산콜렉티브(NhaSan Collective, 베트남), 안테나(Antenna, 일본), 키타가와 타카요시(Kitagawa Takayoshi, 일본), 첸칭야오(Chen Chin Yao, 타이완), 도르지데렘 다바(Dorjderem Davaa, 몽골), 헤리 도노(Heri Dono, 인도네시아), 사라 라바(Sara Rahbar, 이란/미국), 수파콘 니사타분두(Suppakorn Disatapundhu, 태국), Hamra 함라 아바스(Abbas, 파키스탄). (42명(팀), 10개 국가)

6. 평가

2014창원조각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무엇보다 중앙부두를 중심으로 돌섬과 원도심 일대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동선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해 관람의 피로도가 높았다는 지적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을 예측하여 지도와 함께 작품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전시장소 앞에 일련번호를 붙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외지에서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도심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전시공간을 찾아다니는 일이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형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비엔날레가 끝난 후 대부분 철거, 폐기하여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과 예년의 비엔날레에 비해 영구설치작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도시 전체를 전시장소로 활용하는 카셀 도큐멘타나 윈스터 조각프로젝트, 유럽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마니페스타의 경우를 볼 때, 나아가 전용관이 있는 광주비엔날레나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해 왔던 부산비엔날레에 비해 마땅한 대규모 전시공간이 없었던 당시 마산의 문화환경을 고려할 때 2014년의 경험은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례라고 생각한다. 특히 풍부한 이야기를 지닌 마산의 도시적 특성과 도시재생의 연속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도심 지역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했음도 밝혀준다. 끝으로 중앙부두에 설치한 사일로의 파편을 이용한 조형물은 마산의 근대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므로 영구설치해야 할 것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흉물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사일로는 마산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유물임이 분명하다. 그것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조형물은 마산 앞바다를 내다보는 창이자 사일로로 대표되는 마산의 근대화를 기억하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사일로를 철거했다고 역사마저 철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14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목 차

1. 개요

2. 주제 - 달그림자

3. 추진방향

4. 전시장소

5. 참가작가

1. 개요

- 행사 명: 2014 창원조각비엔날레
- 행사기간: 2014. 9. 25 - 11. 9 (46일간)
- 행사장소: 돌섬·마산항 중앙부두·문신미술관·창동일대
- 주 제: 달그림자 / 月影 / The Shade of the Moon
- 참여작가: 42명(팀)
- 예술감독: 최태만(국민대 교수)
- 큐레이터: 김지연(독립큐레이터)
- 총 예 산 : 16억(국고 5억+시비 11억)
- 주 최: 창원시
- 주 관: 2014 창원조각비엔날레추진위원회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2. 주제- 달그림자

“달이 온 세상을 비추고 예술은 달그림자처럼 세상으로 스며든다.”

-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이 말년에 지금의 마산인 합포에 머물며 세운 월영대(月影臺)에서 착안
- “달그림자”는 최치원은 물론 그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마산에 바치는 오마주
- “달그림자”는 비단 낭만적이고 문학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동시대예술이 지향하는 ‘삶 속으로 스며드는 예술’에 대한 메타포이자 2014창원조각비엔날레의 방향과 목표를 함축
- 마치 하나의 달이 세상을 비추듯이 “달그림자”는 예술이 마산 앞바다에 내려앉은 달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치도록 할 수는 없을까 하는 희망을 상징
- “달그림자”는 덧없이 사라져버릴 그림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우리 현실에 연결된 예술을 추구하려는 의지의 표현

3. 추진방향

- 국제적 수준의 비엔날레에 접근
- 창원조각비엔날레의 고유한 정체성 구축
- 2014창원조각비엔날레를 창원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 창원조각비엔날레를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로 정립
- 아시아의 독특한 조각비엔날레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
- 청년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험적이고 개방적인 비엔날레로 유도

4. 전시장소



5. 참가작가 (총 42팀)

• 국내작가

강영민, 권민호, 김월식, 김형수, 박경주, 박승모, 배달래, 옥정호, 이은우, 이원호, 이정희, 임옥상+승효상, 은주+한량맨션, 정만영, 정혜련, 조전환, 천경우, 천대광, KKHH(강지윤+장근희), Flo Maak+CU Photo, 한원석, 허태원 (23팀)

• 국외작가

Cai Zhisong (중국), Yin Xiuzhen (중국), Wang Zhong (중국), Cui Xianji (중국), Li Zhanyang (중국), Shreyas Karle (인도), Anjana Chetty (인도), N.S. Harsha (인도), Tran Luong (베트남), Nha San Collective (베트남), Antenna (일본), Kitagawa Takayoshi (일본), Chen Chin Yao (타이완), Dorjderem Davaa (몽골), Heri Dono (인도네시아), Sara Rahbar (이란/미국), Suppakorn Disatapundhu (타이), Hamra Abbas (파키스탄). (19팀, 10개 국가에서 참가)

돌섬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 기존의 설치작품 외엔 더 이상의 영구설치 작품을 추가 하지 않는 대신, 버려지고 유기된 공간을 관람객의 쉼터로 재구성
- 전시 가능공간을 활용해 프로젝트 형 작품 전시



임옥상+승효상, <엘리스의 방>, 기존 방치된 건물 재활용 쉼터 조성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임옥상+승효상, <시목(詩木)>, 김춘수와 천상병 시인에 대한 오마주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정만영, <순환하는 소리들>, 마산의 소리를 채집하다.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조전환, <월인각(月印閣)>, 민불을 위한 보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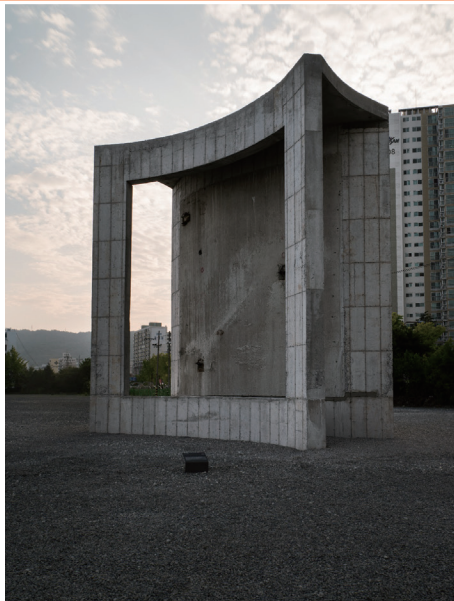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증양부두

- 2014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메인 전시 공간
- 공공미술 성격의 조형물과 현장 프로젝트 위주 설치
- 증양부두 일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쉼터이자 산책로인 증양부두를 전시공간으로 탈바꿈
-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왕중(王中, 중국), <환영(幻影) No.2>, 바람에 움직이는 조각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박승모, <연기(緣起) 문신>, 문신에게 바치는 오마주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키타가와 타카요시(일본), <열리는 표층>, 무대건축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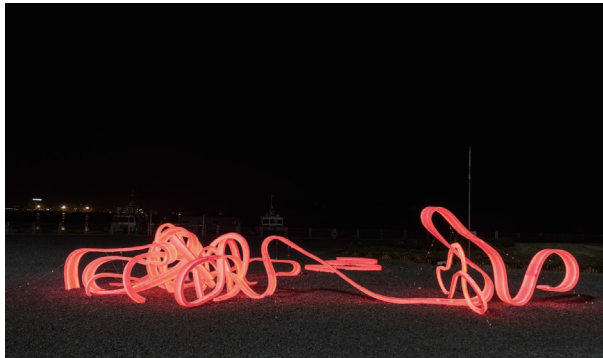
안테나(일본), <공허>, 마산에서 수집한 쓰레기로 만든 보물선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정혜련, <추상적 시간>, 시간의 띠, 빛의 길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강영민, <만국기 애드벌룬 ㄱㄱ乙乙>, 애드벌룬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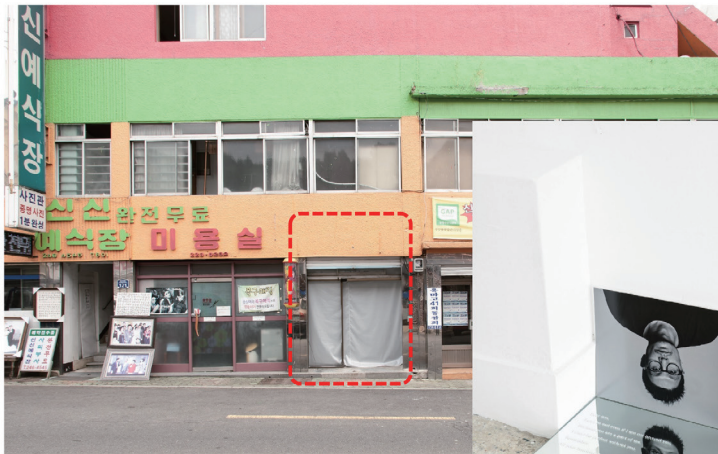




실내 작품 배치

Venue	주소	전화번호	배치 작가
창동예술촌			
창동갤러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6-41		Cui Xienji(최현기)
리아갤러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북13길 11		권민호
창동아트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24 (중성동)		강영민, Sharmila Samant(India)
마산미업 창동아트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38		Thailand Community Art Archive(Suppakorn)
커피밀 2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268	055-224-7580	아플로코퍼레이션
창동 레지던시 3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268 3층	070-8802-6438	배달래, Tran Luong, Asim Wagif
확문당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동 63번지	055-246-2925	Book store
아래나 피씨방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151-1		이정희, Nhasan Collective
부림시장			Biennale Lounge
창동 전광판			박경주
추산동			육영호, Chen Chingyao
한울인쇄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서1길 11-2		이은우
합기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3-89		허태원
서성동 반지하 사무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3-89		Anjana Kothamachu, Sheryas(India)
'Mumbai Pavilion' 신신예식장 1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315	055-246-7801	뉴신신사진관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본관 1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47(추산동)	055-225-7181	김형수, Hamra(Parkistan), Heri Dono(Indonesia), Yin Xiuzhen Family
본관 2층	위와 동일		Li Zhanyang(China)
2관 1층	위와 동일		Davaa Dorjderem(Mongol), Cai Zhisong(China)
원형전시실	위와 동일		Sara Rabbar(Iran/U.S)
돌성			전경우
세미나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625		돌성 아카이브 (윤성미, 임+송, 조전환, 천대광, 정민영)
마산YWCA			Sharmila Samant(India)







쉬리야스 카를레(인도), <거부된 프로젝트 아카이브>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허태원, <미상을 따라서>, 마산의 근대화와 재봉사의 삶 아카이빙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나산 콜렉티브(베트남), <구름이 알려주리라>, 하노이 나산 콜렉티브 아카이빙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이정희, <움직이지 마세요>,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 10명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아플로 코퍼레이션, <아플로 조각 컬렉션> 폐품 리사이클링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추이센지(崔憲基), <연애편지>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박경주, <시 스루(See Through), 부림시장을 커뮤니티아트 현장으로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창원시립문신미술관

- 화이트 큐브가 필요한 현대미술작품을 선보일 예정
- 문신미술관에 수준 높은 동시대 조각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



김형수, <디지털 만화경>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헤리 도노(인도네시아), <도노사우러스>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인쉬젠+송동 가족(중국), <조각영화관>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도르지테렘 다바(몽골), <인간과 자연> 외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차이지송(중국), <모국에 대한 송시>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리잔양(중국), <임대-수조원(收租院)>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감사합니다.

최태만의 발제 ‘2014창원조각비엔날레’에 대한 질의

김성호(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최태만 전 감독님께서 맡으셨던 2014창원조각비엔날레에서는 새로운 실험과 시도가 많이 펼쳐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비엔날레가 2회 행사였던 만큼, 조각비엔날레의 장기적인 정체성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감독님의 발제문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창원조각비엔날레만의 ‘무엇’과 지역성 담론

글에서 밝히고 계시듯이, 발제자께서는 국내의 여타 비엔날레와 차별화된 2014년 당시의 창원조각비엔날레의 고유한 정체성과 위상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셨습니다. 특히 당시의 비엔날레가 마산을 중심으로 펼쳤던 것인 만큼, ‘마산 읽기’와 ‘지역성 드러내기’에 골몰하셨는데요.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전이라는 차원에서, 10년이 이르는 오늘날에도 지역성에 대한 고찰은 여전히 화두가 되어야 하겠지만, 국제전에서 비엔날레 초기의 관심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여기, 지금’의 상황에서 창원조각비엔날레가 당면한 지역성 담론이 있다면, 발제자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꼽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성 담론을 떠나 여타 비엔날레와 차별화된 ‘창원조각비엔날레만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 발제자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2.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전시 공간

발제자께서는 2014년 ‘마산항 중앙 부두를 중심으로 돌섬, 문신미술관 그리고 창동 및 마산합포구 원도심’에 이르는 도시 곳곳을 현장으로 삼아서 비엔날레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글에서도 드러나듯이, “전용관이 있는 광주비엔날레나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해 왔던 부산비엔날레에 비해 마땅한 대규모 전시 공간이 없었던 당시 마산의 문화 환경을 고려”하고, “도시 전체를 전시 장소로 활용하는 카셀도쿠멘타나 윈스터조각프로젝트, 유럽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마니페스타의 경우”를 참조하면서 시도했던 발제자의 의욕적인 실험으로 보입니다. 비엔날레가 전개되었던 당시 마산시의 특성을 스토리텔링으로 묶어 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발제자께서도 언급하고 계시듯이 “2014창원조각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비판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중앙 부두를 중심으로 돌섬과 원도심 일대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동선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해 관람의 피로도가 높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물론 카셀이나 윈스터 역시 도시 전체를 전시 공간으로 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두 소도시가 거대 도시 창원이 참조할 ‘비엔날레 도시 모델’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0년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한 이래 2014년 당시 인구 109만의 거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한 창원시를 2014년 당시 인구 20만의 독일의 소도시 카셀과 인구 30만의 윈스터를 모델로 참조하기에는 도시 특성이나 체급 면에서 어울리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원과 달리 윈스터는 인구 중 1/5가량이 학생인 ‘대학 도시’라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창원조각비엔날레는 마산시를 중심으로 한 비엔날레였습니다만, 윈스터나 카셀을 참조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일테면 창원시에 부합할 만한 ‘전시 공간에 관한 새로운 창원형 조각비엔날레 모델 만들기’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발제자께서는 2014년 도시 내 다양한 공간들을 비엔날레 전시공간으로 삼았던 것이 아직도 최상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당시의 미디어와 지역 사회의 비판을 현재 인정하고 수용하고 계시는지요? 또는 당시의 비판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당시의 전시 공간 선택에서 혹시 차선이 가능했다면, 어떤 장소 구성이 필요했을까요? 당시의 입장에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3.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출품작

창원조각비엔날레의 고유한 정체성은 무엇보다 ‘국제전’과 ‘조각’이라는 것에 집중될 것입니다. 먼저 ‘국제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발제자께서는 아시아 10개국 42명(팀)의 출품 작품을 선보였는데, 국제전에서 ‘아시아 출품 작가’로만 비엔날레를 구성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조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발제자께서는 ‘마산항 중앙 부두’에 “공공미술 성격의 조형물과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작품”을 설치하셨고, ‘창동예술촌과 추산동 일대’에는 “조각이란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 재생과 공동체 미술을 지향하는 다양한 동시대 미술”을 설치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프로젝트형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비엔날레가 끝난 후 대부분 철거, 폐기하여 문신 국제조각심포지엄과 예년의 비엔날레에 비해 영구 설치 작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항간의 지적을 질의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습니다. 조각비엔날레는, ‘영구 설치 작품’을 남겨 조각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조각심포지엄’과는 엄연히 다른 특성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처럼 이러한 영구 설치 작품을 통해 ‘조각 공원화 혹은 조각 도시화’를 지향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도 일정 부분 사실 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엔날레는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의 상황을 전문 기획자의 시각을 빌려 대대적으로 선보이는 종합 미술 축제입니다. 그렇듯이 창원조각비엔날레는 동시대 조각을 중심으로 선보이는 종합 조각 축제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드리는 제 질문은 영구 설치 작품의 존재 여부이기보다, 조각비엔날레 출품작과 관련한 것입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조각이란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 재생과 공동체 미술을 지향하는 다양한 동시대 미술”이 왜 특별히 2014년 조각비엔날레에 필요했는지요? 이 질문은 동시대 융복합 예술의 상황에서 다변화된 조각의 위상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2회째를 맞이했던 2014창원조각비엔날레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한 번쯤은 논의가 필요할 듯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각비엔날레를 창설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조각 개념의 확장이나 다변화’를 꾀했던 시도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설픈 질문을 드렸지만, 본 질의자로서는, ‘비조각’이라는 주제를 선보이고자 하는 2020비엔날레 총감독으로서, 발제자께서 주시는 답변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술에서의 파격이란 의미구현과 예술과 함께 놀기의 조화를 보여 주신 총감독님께 창원미협회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의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당시 창원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시를 기획하신 부분이 있는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었는지 말씀해주시면 작년도 비엔날레에 대한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지역에서 독특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미술행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지역 미술행사의 경쟁력을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억조창생(億造創生)

- 물질적 상상력과 오브제 -

윤진섭 _ 미술평론가,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 - 억조창생(億造創生)

- 물질적 상상력과 오브제 -

윤진섭(2016' 총감독/미술평론가)

1. 주제에 대하여

2016년에 열린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는 '억조창생(億造創生)'이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원래 '억조창생(億兆蒼生)'에서 유래한 것이다. 지금은 다소 낯선 말이 돼버렸지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통 사극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당한 어명을 내리면, 문무백관이 머리를 조아리며 "전하! 억조창생을 굶어살피시옵소서!"라고 외치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이때 억조창생이란 말은 '만백성'을 가리킨다. 나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봐 온 사극의 장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 주제를 구상했다.

수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구상한 '억조창생'을 영어로 번역하면 대략 "We create things, things create us." 정도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 전시의 도록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조각을 다루는 격년제 미술 행사이다. 미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 조각만큼 '만든다'는 인간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물론 공예나 건축도 인간의 창작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흙을 비롯하여 나무, 돌, 쇠, 구리, 시멘트 등등 원초적 자연의 질료를 통해 예술적 아이디어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조각만큼 생생한 것이 없다. 조각가들은 원초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거기에 예술의 혼을 불어넣는다. 따라서 "수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조각가들의 행위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데미우르고스의 후예들이다. 플라톤의 저작 '티마이오스' 편에 나오는 이 말은 원래 '제작자'를 의미했다. 세계를 창조하는 거인, 즉 데미우르고스는 선성(善性)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자신을 닮기를 바라면서 무질서와 혼돈에 질서를 부여했다.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데아를 범본으로 응혼한 영혼을 지닌 이성적 존재로서의 사물을 창조했다. 그러나 세계가 이미 존재하는 질료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은 데미우르고스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해 낸(creatio ex nihilo)' 창조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에서 예술작품을 창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은 현대예술의 숙명이다. 따라서 데미우르고스의 후예인 현대의 예술가들은 오직 상상력을 통해 존재하는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을 뿐이다. 성산아트홀 전시관 전관에서 열린 [오브제-물질적 상상력전]은 말 그대로 오브제를 다루는 작가들을 초대하여 사물의 본성과 그 변용 양상을 살펴볼 목적으로 만든 전시다. 오늘날의 작가들은 사물을 어떻게 다루며, 일상에서 구한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작품화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다다(Dada)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오브제가 예술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그것은 현대예술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었다."

성산아트홀에서 열린 [오브제-물질적 상상력전]은 오브제와 설치미술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꾸민 전시였다. 뿌리 없이 부유하는 듯한, 마치 비엔날레를 겨냥한 듯한, 어찌 보면 천편일률적일까 그것이 그것 같지만 한 개성이 상실된 일부 청년 작가들의 행태를 보며 독자적인 작가들을 선정해서 물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 전시였다. 따라서 용지호수공원에 설치된 조각전보다 더 심혈을 기울인 주제전이 바로 이 전시였던 것이다.

'물질적 상상력'은 프랑스 출신의 저명한 과학철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한 가스통 바슐라르의 잘 알려진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일찍이 그는 고대 그리이스 이래 형성돼 온 서양철학의 전통, 즉 합리적 이성애 가려진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에 주목하였다. 그는 사물의 이미지와 사물에 대한 인간의 감성에 주목하여 인간들에게 꿈꿀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아 주었다. 흙, 물, 불, 공기 등 4원소를 근간으로 사물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시도하여 인간 정신의 우주적 감응을 시도한 것이다.

나는 이 전시를 통해 물질을 다루는 작가들의 내면세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오브제를 표현의 재료로 사용하는 작가들을 주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전통사상에 의거, 불(火), 물(水), 나무(木), 쇠(金), 흙(土) 등 오행으로 분류한 뒤, 현대미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변용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 전시가 지닌 의미는 무엇보다 '물질적 상상력'의 복원에 있다. 불, 물,

나무, 쇠, 흙 등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5원소에 대한 미학적 내지는 철학적 성찰을 통해 물질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것과의 만남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합리적 이성이 지배하는 오늘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2. 전시

[야외조각전](용지호수공원 주변)

창원시의 외곽에 자리 잡은, 그러나 도심에서 멀리 않은 용지호수공원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 공원은 예술과 이렇다 할 관련이 없었다. 운동시설과 산책로, 조깅 코스, 등산로, 잔디밭, 테니스장 등 시민들의 체력 향상과 휴식을 위한 시설은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예술품 감상을 위한 전시장 및 야외 조각공원은 조성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창원시는 이번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를 계기로 야외조각공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초대작가:

해외 : 노벨로 피노티, 밌모 팔라디노,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첸웬링, 양치엔 등

국내 : 김영원, 박은선, 이일호, 한진섭, 신한철, 한효석, 이경호, 김승영, 이재효, 홍지윤, 윤진섭(조각), 박원주, 이응우, 전원길, 고승현 등

성산아트홀/실내전

[오브제-물질적 상상력] 전

성산아트홀에서 선보일 실내전의 제목은 [오브제-물질적 상상력]이다. 국내외 작가 약 50여 명이 초대된 이번 전시는 오브제(Objet)를 매개로 전개되는 설치전이 중심을 이룬다. 성산아트홀 7개 전시실 약 800여 평의 전시 공간에서 펼쳐지게 된 이번 전시는 주로 전위(Avant-garde)의 입장에서 작업해 온 작가들의 기존 작품, 혹은 프로젝트 작업들이 소주제에 따라 분류, 전시되었다. 가스통 바슐라르의 개념에서 빌어 온 '물질적 상상력(Material Imagination)'은 우주를 채우고 있는 기본 4원소인 '흙, 물, 불, 공기'를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본 전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를 주역을 중심으로 한 동양철학의 5개 범주, 즉 오행(물(水), 불(火), 나무(木), 쇠(金), 흙(土)) 등의 개념과 융합, 이러한 요소들이 현대 조형예술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밌모 팔라디노(Mimmo Paladino) 특별전](성산아트홀)

이탈리아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트랜스 아방가르드(Trans Avangarde)의 대표작가 중 한 사람인 밌모 팔라디노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좋은 기회였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평론가이자 기획자인 아킬레 보니토 올리바(Achille Bonito Oliva)가 80년대 초반 미니멀리즘이 종언을 고한 뒤 미국의 뉴페인팅, 프랑스의 신구상회화, 독일의 신표현주의 등 구상의 복원을 기도하는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 전역에 일어났을 때, 신화를 주제로 한 이탈리아의 엔조 쿠키, 산드라 키아,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등 독자적인 화풍을 지닌 작가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미술사조에 뒤늦게 참여한 밌모 팔라디노는 정작 이 용어를 달가워하지 않아 주목된다. 한국에 소개된 적이 있는 엔조 쿠키와는 달리 밌모팔라디노는 그룹전을 통해 간헐적으로 소개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특별전을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은 처음이다. 밌모 팔라디노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국민작가 중 한 사람이다.

[김인경 특별전](성산아트홀)

김인경은 40여 년에 걸친 작품 활동을 통해 독자적인 추상 조각의 세계를 구축한 작가이다. 초기에는 엄정한 질서와 동일한 단위의 반복에서 오는 균제미를 통해 모더니즘 추상 조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그는 2천 년대에 접어들어 무엇이라고 딱히 규정할 수 없는 사물들을 만드는 작업에 빠져들었다.

군용물품을 연상시키는 그의 작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형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막 착륙한 듯 보이는 우주선을 비롯하여 비행접시, 혹은 거대한 로켓, 코끼리 등등 그가 제작한 사물들은 그러나 무엇을 연상시킨다는 공통점을 지닐 뿐, 뚜렷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 모호한 세계를 발판으로 벌어지는 조형적 드라마가 바로 김인경이 추구하는 세계의 본질이다.

[창원 조각의 어제와 오늘-5인의 거장 특별전](성산아트홀 7실)

창원이 낳은 한국 근현대의 대표적인 조각가 5인의 작품세계를 기리는 특별전이다. 우성 김종영(1915-1982), 문신(1923-1995),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 등 한국 현대조각을 대표하는 정상급 작가의 작품을 통해 구상과 추상 등 한국 현대조각의 단

면을 살펴볼 좋은 기회이다. 이들 5인의 거장들이 창원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은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역사성을 돋보이게 하는 요인이다. 서울대학 교수를 역임한 우성 김종영은 조각과 서예 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사물을 단순한 형태로 환원한 김종영의 조각은 한국 모더니즘 조각의 선구자인 작가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신은 파리를 중심으로 주로 유럽에서 활동, 이름을 남긴 조각가이다. 귀국 후 문신미술관의 설립을 통해 작품 활동에 주력하였다.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였다.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대칭형의 흑단 목조각이 대표작이다. 박종배는 순수 추상의 세계에 몰입해온 모더니즘 조각의 대표작가이다. 오랫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환원적 특징이 두드러진 조각 세계에 몰입해 왔다. 홍대 교수와 미협 이사장을 역임한 박석원은 미니멀한 형태의 모더니즘 조각이 특징이며, 석조와 브론즈를 통해 단순미를 추구하고 있다. 홍대 미대 학장과 한국조각가협회 회장을 역임한 김영원은 구상조각계의 중진 작가이다. 광화문의 세종대왕상 등 대표적인 초상조각이 많으며, 초기에는 초현실주의풍의 집단적 인체 조각을, 최근 몇 년간은 단순화된 반구상의 형태에 주력하고 있으며 조각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조각의 거장인 노벨로 피노티와 함께 2인전을 가져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시선-비평과 창작의 사이전](성산아트홀 7실)

비평가와 전시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 회화, 조각, 도예, 개념미술 등 평소에 창작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코너이다. 관객들은 이번 출품작을 통해 평소에 비평가와 전시기획자로 알고 있는 참여작가들이 어떻게 실제 조형 활동을 하는가 하는 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이다. 오늘날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많은 수의 비평가와 전시기획자들은 연구실과 서재의 밖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품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 한정된 작가의 작품을 특유의 조형 세계를 선보인다.

[헨로 파운데이션 국제조각상전](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이 전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대리석 가공 회사인 헨로 주식회사의 파올로 칼리(Paolo Carli) 회장과 에르미니오 지도니오(Erminio Gidonio)가 설립한 헨로 파운데이션이 주최하는 '헨로국제조각상(SIHX:6 Marble Art Works from the Henraux Foundation International Sculpture Award)'에서 대상을 수상한 역대 수상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상은 2년마다 공모를 통해 40대의 젊고 유망한 작가를 선정, 회사에서 생산하는 양질의 최상의 재료는 물론, 최고의 기술력을 제공, 국제적인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권위 있는 상이다. 헨로 파운데이션은 헨리 무어를 비롯하여 한르 아르프, 이사무 노구치, 조르주 반통겔루 등 수많은 조각가와 함께 국제적 조각센터를 조직하여 문화 예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본 전시는 2012년 제1회 수상자인 알렉스 봄바르디에리(Alex Bombardieri)를 비롯하여 2014년 제2회 수상자인 카엘 오한자 반, 필리포 치아볼리 코리텔리(Filippo Ciavoli Cortelli), 마시밀리아노 펠레티(Massimiliano Pelletti), 제3회 수상자인 다니엘 구이두글리(Daniele Guidugli), 김 드 루이스체(Kim de Ruyscher)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2016 창원
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6. 9. 22 - 10. 23
용지호수공원
성산아트홀
문신미술관

총감독 윤진섭



억조창생
億造創生
WE CREATE
THINGS,
THINGS
CREATE US

억조창생(億造創生)
億(억) 造(지을 조) 創(비롯할 창) 生(날 생)

"수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한다."

"수많은 백성이라는 뜻인 억조창생(億造創生)을 변형한 '생명을 가진 수많은 사물'을 의미하는 억조창생(億造創生)은 현대조각의 기초를 3차원에 존재하는 사물로 뛰어 조각에서 도예, 설치, 건축, 대지미술, 퍼포먼스 아트까지 3차원에서 4차원을 넘나드는 현대조각의 개념을 전달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브제-물질적 상상력

물, 울, 나무, 쇠, 흙 등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5원소에 대한 미학적 내지는 철학적 성찰을 통해 물질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것과의 만남을 시도



야외 조각전_용지호수



<국내의 작가 31명>
예외작가 : 노벨로 피노티, 밌모 팔라디노,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켈렌빙, 양지연 등
국내작가 : 김영원, 박은선, 이일호, 한진섭, 신한철, 한효서, 이경호, 김승영, 이재효, 홍지윤, 윤진섭(조각), 박원주, 이응우, 전원길, 고승현 등

밌모 팔라디노 Mimmo Paladino
이탈리아



말 Horse
310×700×140cm / F.R.P / 2008

노벨로피노티 Novello Finotti
이탈리아




제노의 그 긴 밤 (The long night of Zeno)
270×60×40cm / Bronze / 1988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Michelangelo Pistoletto
이탈리아



제3의 정원 The Third Paradise
800×2,400cm / Mixed media

김영원



그림자의 그림자(호로서드2)
500×140×140cm / Bronze

첸웬링 Chen Wenling
중국



무용도원 No.3
300×160×120cm / Copper painting, stainless steel / 2015

박은선



집속2
210×175×167cm / Stones / 2013

양치엔 Yang Qian
중국



종이남자 Paper Man
180×180×80cm / Magazine paper and Resin / 2009

김승영



누구나 마음속에 정원이 있다.
300×550cm / Bricks, steel, light

송승



My Virtual Romance
Variable installation / Mixed media / 2010-2016

송필



行-Walking part
390×186×77cm / Shoes, FRP, steel / 2015

심영철



모뉴멘탈 가든
Dimensions variable / Mixed media / 2002-2005

안두진



The Mountain
Dimensions variable / Mixed media / 2016

유목연



목연포자
189×50×70cm / Shopping carts, wood / 2012

이기봉



수면기계
322×486×200cm / Mixed media / 2003

이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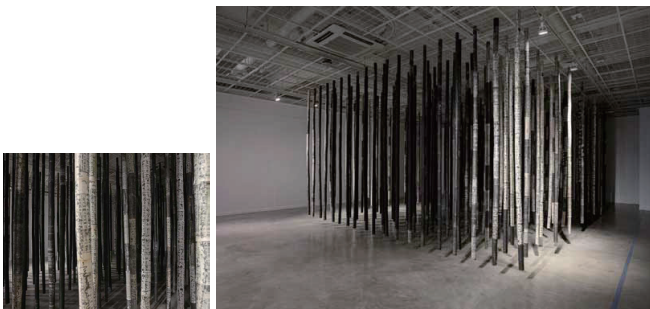
Dreaming book-Sea
Dimensions variable / Book papers / 2016

장승호



Bless Us! - Winter
245×145×194cm / Piano, mixed media / 2010

정광희



무제
Dimensions variable / India ink paintings, bamboo / 2014

최수양



혼적
161×76×191cm / Mixed media / 2014

코디최



Double Head
46×38×33cm / Wax / 1993-1994

팀부르크스 Tim Breukers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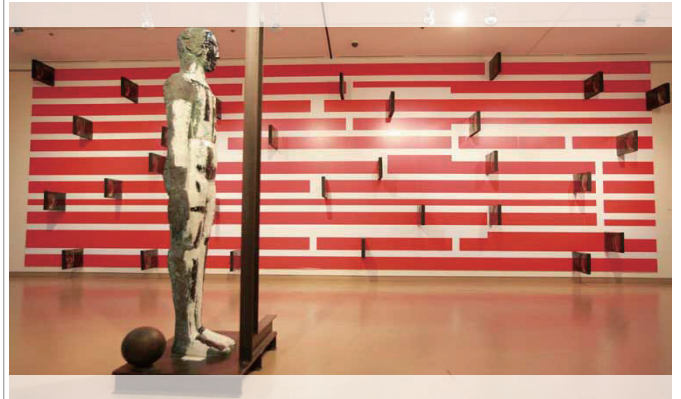
트로이의 목마 Trojan Horse
Dimensions variable / Mixed media / 2016

황주리



주역의 고고학
Dimensions variable / Painting on the wood/ 1994-2016

میمو 팔라디노 특별전(Mimmo Paladino)_성산아트홀



무제_MP S05 101
215 x 80 x 60cm / Bronze /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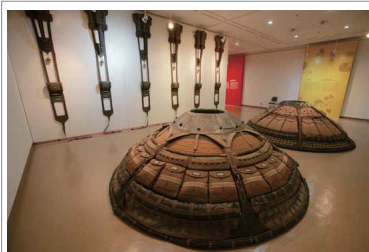


타일 벽화
330 x 925cm / Mixed media / 2016

김인경 특별전_성산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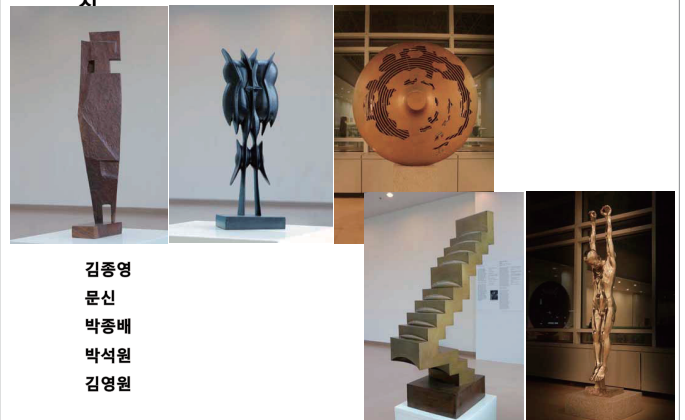
SILENT VOYAGE 몽환포영
120 x 250 x 360cm (4 each) / Mixed media / 2009-



SILENT VOYAGE KARMA
Dimensions variable / Mixed media / 2007-



창원 조각의 어제와 오늘 - 5인의 거장 특별전_성산아트홀 7



김중영
문신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

또 다른 시선 - 비평과 창작의 사이_성산아트홀 7실

김노암
김성호
변종필
서성록
서정걸

또 다른 시선 - 비평과 창작의 사이_성산아트홀 7실

오세권
윤익영
윤진섭
이석우
임재광

SIHX: 6 | 헨로 국제조각 수상작 전_문신미술관

<2016창원조각비엔날레 학술 심포지엄>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정체성과 공공성

2016.9.23(금) /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홀

발제자
김이순(홍익대학교 교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하계훈(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백승한(연세대 인문학연구소)

질의
이영란(미술저널리스트, 뉴스핌)
송만용(동서대학교 교수, 미술평론가)
난나, 최현주(작가, 공공미술기획자)

사회 · 좌장
정연심(홍익대학교 교수)

2016창원조각비엔날레 라운드 테이블
물질적 상상력

2016.10.3(월) / 성산아트홀 소극장

<신인류의 초상, 거북선을 튜닝하다>_김진우
<인공위성-인공지능-멀티우주-모듈라시스-폼바>_송호준
<포스트 휴먼>_한재권

프로그램 구성

전체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합계	
메인프로그램	국내행사	특별전2 (김인경)	총 3개	
		특별전3 (창원 조각어제와 오늘-5인의 거장 특별전)		
		특별전4 (또 다른 시선-비평과 창작의 사이전)		
	국제행사	창원조각비엔날레 야외전시		총 5개
		주제전시 (오브제-물질적 상상력)		
특별전1 (임모 팔라디노)				
특별전 (현모 국제수상작 전)				
주제공연-역조장생				
부대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나도 조각가 (Junk Art 외 3종)	총 13개	
	워크숍	창원시민 주역조각 만들기 워크숍		
		태양광 로봇 플라잉맨 만들기		
		거리조각 프로젝트		
	세미나	반딧불 이야기		
		국제학술포지럼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정체성과 공공성)		
		라운드테이블 (물질적 상상력)		
	시민체험 프로그램	컬리페이퍼 체험		
		비엔날레 스탬프 투어		
	기타공연 등	비엔날레 전시 체험지		
도슨트 체험프로그램				
	비엔날레 '판' 페스티벌-비엔날레랑 놀자			
	비엔날레 아트마켓 운영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개요

- 주최: 창원시
- 주관: (재)창원문화재단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장: 신승수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 예술감독: 윤진섭
- 행사기간: 2016. 9. 22 ~ 10. 23
- 사업기간: 2016. 1. 1 ~ 12. 31
- 행사장소: 창원용지호수공원, 성산아트홀, 문신미술관
- 참여작가(팀)/작품 수: 15개국 118명/팀 149점
- 참가국: (19개 국가 (한국 포함) -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콜롬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벨기에, 아르메니아, 한국)
- 행사 수: 메인행사 수 8개, 부대행사 수 13개
- 관람객 수: 128,495명 (외국인 관람객 1,064명, 내국인 관람객 127,431명)
- 총 사업비: ₩ 1,500,000,000(금일십오억원)/국고지원금 ₩ 500,000,000(금오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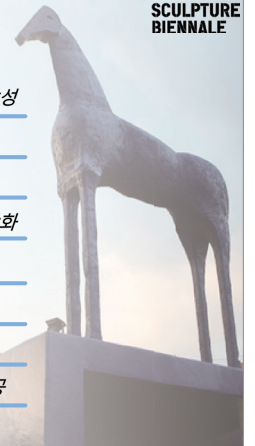
홍보실적

N.	매체	내용(기사명, 광고타이틀 등)
1	TV 및 라디오 출연	방송출연 및 인터뷰 등 8회
2	TV(케이블포함) 광고	TV SPOT 및 자막광고 송출 106회
3	미술전문잡지(월간지) 지면광고	Art in Culture 외 6종 지면광고 및 기사보도 11회
4	신문(일간지) 지면광고	신문지면 광고(경남신문 외 1종) 2회
5	신문 및 인터넷 등 기사보도	경향신문 등 신문(일간지) 기사보도 267회

총 평

- ✓ 시민참여 프로그램 강화로 관람객 모객 목표 달성
- ✓ 조각 특성화 미술행사로 자리매김
- ✓ 창원 출신의 한국 현대조각의 거장들을 소개
- ✓ 비엔날레 자체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전홍보 강화
- ✓ 홍보대상, 시기, 지역별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 ✓ 조직 상설화로 비엔날레 장기 비전 제시
- ✓ 전 세계 유명 조각가 대거 참여
- ✓ 창원의 문화기획 인력 양성 및 참여의 기회 제공

2016 창원
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윤진섭의 발제 ‘2016창원조각비엔날레’에 대한 질의

이상헌(마산미술협회장)

시민참여예술로서 창원조각비엔날레

2016년에 열린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는 ‘억조창생(億造創生)’이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즉 오브제가 미술 주체가 되는 작품입니다.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작품 중 퍼포먼스 조각인 ‘에릭 스캇 넬슨’ 작가의 ‘창원시민의 조각’이란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작품을 구상하고, 일상용품이나 폐품 등의 재료를 수집하여 제작하고 설치하기까지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제작하여 버려진 일상용품에 생명을 부여하여 거대한 설치작품으로 완성한 것이 그야말로 ‘일상 속의 예술’을 실천한 것이라 봅니다.

나아가 시민들이 현대의 난해한 조각 작품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으며, 친근감을 가지게 하여 조각품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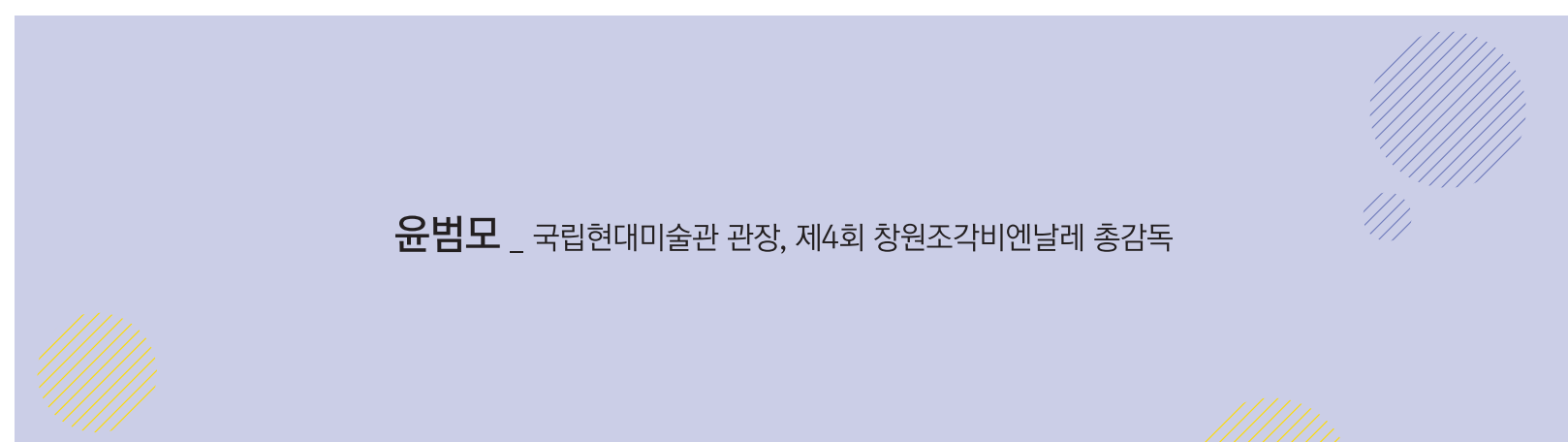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작가들의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장르에 많은 시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통역에서부터 잡다한 일까지 작가들과 함께하고,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자원봉사자들이 각 작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애착심과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작가들에게 자기 나라의 특색 있는 음식을 소개하게 하고 음식 도우미들과 요리하여 시민들에게도 맛보게 하는 행사도 곁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시민참여예술로서 확장을 보인다면, 이에 대한 발제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 경험이 많으신 발제자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4회 2018창원조각비엔날레 不刻의 균형

윤범모 _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제4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제4회 2018창원조각비엔날레 - 不刻의 균형

윤범모(2018' 총감독/국립현대미술관 관장)

1. 왜 불각의 균형인가

창원은 이름 높은 조각가를 배출한 '조각의 도시'이다. 김종영, 문신,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 등 빛나는 조각가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연은 '창원 조각'의 특화를 강조할 당위성을 갖게 한다. 그래서 창원은 국내 유일의 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로 부상되었다. 창원 작가 가운데 대표작가로 김종영과 문신을 들 수 있다. 김종영은 문인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추상조각의 선구자로 독자적 예술세계를 남겼다. 그의 작품은 '불각(不刻)의 미학'이라는 키워드로 집약 할 수 있듯, 비균제의 형태로 자연스러운 독자성을 수립했다. 반면 문신은 균제, 대칭, 조화, 균형이라는 키워드로 집약 할 수 있는 작업을 남겼다. 같은 추상 계열의 작품이면서, 이들의 대칭/비대칭, 균형/불균형 등의 조형적 특성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집약시키면서, 조각의 의의를 반추하게 한다. 이에 창원 조각의 정체성(正體性) 특히 김종영과 문신의 예술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두 작가의 예술적 키워드를 이번 비엔날레의 기치로 삼고자 한다. 바로 '불각'과 '균형'이 그것이다.

불각의 균형은 (The Balance of Non-Sculpting)은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불각은 자연스런 상태에의 추구이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추구하게 한다. 무위(無爲)라 하여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깎기는 깎지만 깎지 않은 것 같은 상태, 자연적 스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상태, 바로 불각의 의미이다. 불각은 원초성 혹은 자연스러움을 지향하고, 균형은 모순과 질곡의 사회에서 상호 균제를 지향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자연성과 인공성 혹은 정신성과 형식성 등의 개념을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고려하게 한다. 물론 미술에 있어 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요소이다. 경우에 따라 이들 개념의 경중은 있을 수 있으나, 형식과 내용은 새의 두 날개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2018 비엔날레는 자연스러움의 조형성과 복잡한 현실의 사회성을 기본 축으로 하여 입체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담론 중심으로 엮고자 한다. 무엇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작업은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참신성과 중량감이다. 형식의 측면에서 표현매체와 방법의 확장을 주목할 것이고, 내용의 측면에서 담론 제시 즉 서사성 혹은 문제제기와 같은 작업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두 가지의 특성을 아우른 것이 바로 '파격(破格)'으로 귀결되리라 믿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술의 조형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을 주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각공원은 여타의 경우와 다른 차별상을 보일 것이며, 전시 역시 색다른 발언과 형식을 시도할 것이다.

전시 형식은 실외/실내, 즉 조각공원과 미술관 전시로 양분된다. 실외전시는 용지공원 포정사 앞에 '유어예(遊於藝) 마당'을 조성한다. 유어예는 공자의 말씀에서 빌려와 나름대로 해석을 달리했다. 바로 '예술작품과 함께 놀기'이다.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은 '접근금지' 즉 '만지지 마시오'라는 주의사항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물론 작품 보존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촉수(觸手) 금지 조치를 취한다. 미술품은 승배의 대상으로 우러러 받드는 그 무엇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유어예 마당은 이와 같은 관행을 엮고, 대중에게 휴식과 놀이의 기능을 갖도록 안내했다. 한마디로 조각 작품 위에서 뛰어놀 수 있고, 미끄럼탈 수 있고, 앉아 쉴 수 있고, 누워 잠잘 수도 있다. 한마디로 조각 작품과 함께 놀기가 가능한 마당이다.

실내 전시는 성산아트홀,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창원의집+역사민속관 등에서 펼쳐진다. 성산아트홀은 '파격(破格)' 주제의 다양한 재료와 형식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김종영 특별전도 함께 열린다. 창원의집 한옥에서는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백남준 이후 대표적 비디오 작가의 작품은 선보인다. 고풍스러운 한옥에서 펼쳐질 미디어 아트 of 향연은 흥미로울 것이다. 문신미술관은 문신 특별전을 비롯 뉴욕에서 활동한 김포(김보현)+실비아 왈드 부부작가 특별전, 그리고 안종연 팀의 미디어 아트 전시가 소개된다. 이번 비엔날레는 미국, 독일, 벨기에, 루마니아, 중국 등 12개국 60여 작가의 2백여 점으로 펼쳐진다. 이들 작품은 모순적 개념 같으면서도 현대사회의 단면을 집약한 '불각의 균형' 혹은 '파격'에 대하여 발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주류 미술계에서 익숙하지 않은 재료와 표현형식 등을 조명한다. 평면작품의 경우, 머리카락, 소금, 프레스코, 한지 인화지 등과 같은 재료를 활용한 작업도 주목한다. 파격은 고정관념을 깨는 행위이고,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는 예술적 행동이다.

2. 遊於藝 마당- 예술작품과 함께 놀기

창원 용지공원 포정사 앞의 잔디마당, 이곳에 영구설치의 조각공원을 조성한다. 바로 이번 비엔날레의 중심축을 이루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조각공원의 개념 정리를 달리 시도했다. 즉 단순 조형물로서의 감상 차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관객은 작품과 거리를 두고 작품을 바라만 보아야 했다. 심한 경우는 작품을 종교적 숭배물처럼 우러러 받들도록 강요당했다. 왜 미술작품은 우러러 받드는 존재여야만 할까. '써먹는 미술' 즉 소비품으로서의 미술작품이라면 어떨까. 하여 갖고 놀 수 있는 미술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왕 영구 설치하는 조각품이라면, 시민의 사랑을 받는 조형물 즉 예술성과 더불어 기능성을 강조하면 어떨까. 의문은 계속 일어났다. 그래서 공자의 말씀 유어예(遊於藝)를 차용하여, '예술품과 함께 놀기, 그 이색공간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실 이는 거창한 개념도 아니다. 미술의 사회적 기능 가운데 효용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작품 위에서 쉬거나 놀기. 유어예 마당은 놀이터 개념을 활용한 조각공원이다. 순수 조형물과 함께 기능성을 강조한 '유어예 마당' 즉 불각균형의 실제적 구현이다.

유어예 마당의 중심은 안중연의 설치작품<아마란스(Amaranth)>이다. 12m x 12m 규모의 대작으로 형태는 아마란스 꽃이다. 조형적 아름다움과 함께 관객 참여의 기능성을 부여한 작품이다. 즉 꽃잎에 해당하는 원형 굴레 안에 역시 원형 평판을 두어 관객들이 쉬거나 놀 수 있게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벤치 역할. 관객은 꽃 대궐 안에서 즐길 수 있다. 작품의 특징은 이런 기능적 측면 이외 조명 역할을 주목하게 한다. 꽃술 부분의 다채로운 빛깔 즉 LED 장치는 스스로 빛깔을 바꾸면서 꽃의 화려한 이미지를 자아낸다. 수시로 바뀌는 색채의 향연, 그것도 곡면의 색채 변화, 이는 근래 독일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활용이다. 곡면 LED 장치에 의한 화려한 색채 변화,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조형물이다. 특히 야간의 화려한 조명 기능은 가로등 이상의 상징성을 가져 용지공원은 물론 창원시의 상징적 조형물로 주목받을 것 같다. 이는 유어예 마당의 개념을 제대로 살린 대형 설치작품이라 할 수 있다. 기능성과 조형성 그리고 상징성까지 겸비한 점을 통해 이번 비엔날레의 성격을 검토하게 한다.

윤영석의 <심장유희(心臟遊藝)>는 스테인리스틸 성형의 심장 모양의 조형물이다. 길이 약 10m 정도의 규모로 잔디마당에 길게 설치된다. 유어예 마당으로 나온 인간의 심장. 심장의 박동은 생명성의 상징이다.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심장 형태의 조형물. 작가는 이와 같은 형태의 설치 작업에 기능성을 부여했다. 즉 비스듬히 설치된 경사면을 이용하여 관객은 '돛자리' 처럼 그 위에서 쉴 수 있고, 심지어 미끄럼틀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 감상용이 아니라 작품 속에서 작품과 일체 되어 쉬거나 즐길 수 있게 설계되었다. 심장 위에서 놀기. 또 다른 유어예의 경우이다.

조숙진의 <삶의 색채(Color of Life)>는 드럼통의 집적이다. 같은 형태의 드럼통 35개를 5단 높이로 쌓아 일견 사각형 구조이지만 그 안에서 균형과 조화의 리듬을 느낄 수 있다. 드럼통의 구조는 약간 들쭉날쭉하여 나름대로 변화감과 참여 관객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단순 구조이지만 채움과 비움의 공간 변화를 도모한다. 그러니까 이 단순구조 작품은 영적(靈的) 내면세계를 상징한다. 기성품의 새롭게 보기. 즉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물을 활용하여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기능성까지 부여했다. 드럼통구조는 시민의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벌집 같은 각각의 드럼통을 출입하면서 놀 수 있고, 시민은 드럼통 안에서 쉬면서 독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낮잠을 잘 수도 있다. 이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특성을 보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불각의 균형' 프로젝트와 부합되는 작품이다. 조숙진은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작가이다.

구본주의 <비스킷 나눠먹기>는 청동주물 작품이다. 중년 남자 두 명이 서로 마주 보고 입을 크게 벌리고 비스킷을 나눠 먹는 장면의 조형물이다. 인물 두상의 사실적인 형상력은 돋보이는 부분이지만, 나눠 먹기의 스토리텔링을 보이면서 감상의 신선도를 자아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두 인물 사이의 비스킷 즉 기다란 목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공원의 벤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자가 있을까. 유어예 마당을 방문하는 시민은 꼭 이 기다란 의자에 앉고 싶은 욕망을 떨쳐내기 어려울 듯하다. 구본주는 요절했지만, 한국 리얼리즘 조각의 대표적 작가였다. 그는 현실 비판과 사회 풍자적 작품을 다수 남겼다. 공원에서 만나는 리얼리즘 미술, 그것도 이색적인 인물 형상, 거기다 기다란 의자 형식의 작품, 주목을 필요로 한다.

임영선의 <불완전한 조각들>은 스테인리스스틸과 알루미늄 재료의 2m가 넘는 두상이다. 이 두상은 네 군데로 절단되어 관객은 두상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다. 두상 안으로 들어가면 센서에 의해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두상은 현대의 전형적인 중년 남성 모습이다. 하지만 4조각으로 나뉜 얼굴, 각각의 부분은 원색으로 도색되어 있다. 두상의 네 쪽은 인생의 생로병사, 희비애락, 그리고 춘하추동 사계를 의미한다. 이 작품의 주제는 '인생' 즉 사람의 일생을 집약한 것이다. 그래서 두상 내부에 들어가면 갖가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갓난아이의 첫 울음소리부터 병원에 실려 가는 마지막 구급차의 사이렌까지,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포함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의 소리가 담겨있다. 물론 소리 속에는 불교의 독경이나 찬송가 같은 종교적 소리도 있다.

오채현의 <행복한 호랑이>는 붉은 화강석을 이용한 호랑이 형태의 작품이다. 호랑이는 앉아 있거나 서 있다. 호랑이는 우리네 민담이나 이른바 민화 속에서 즐겨 나오는 소재이다. 벽사초복(邪招福)의 존재이다. 그래서 '까치호랑이' 혹은 신선도에 즐겨 등장했다. 유어예 마당에 우리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식 조형물로 오채현 작가를 선정했다. 한국 상징의 호랑이. 서울올림픽 당시 '호돌이'로 상징했던 우리의 호랑이. 이런 호랑이를 창원으로 모셔왔다. 어린이는 호랑이 조각의 등에 올라 탈 수 있다. 해학적 요소가 강하기도 하다. 이 호랑이 한 쌍은 용지공원의 수호신 역할을 하면서 전통의 현대적 변용의 경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흥미로운 조형물로 이이남의 <피노키오의 거짓말>을 들 수 있다. 거짓말을 많이 하여 코가 길어졌다는 피노키오. 원래 영상

작업으로 명성을 떨친 이이남은 미대 재학 당시 조각 전공답게 이번에 조형물을 제작했다. 경쾌한 분위기의 피노키오는 어린 이의 관심을 듬뿍 받을 것 같다. 이환권의 은 높이 12m의 장대 위에 설치된 인물이다. 원래 이환권의 <영웅>은 인체의 왜곡 즉 오목렌즈와 볼록렌즈에 비친 인체 표현으로 유명했다. 훌쩍하거나 뚱뚱한 형태의 인체. 굴절되고 왜곡된 현대인의 상징성을 강렬하게 표현하여 주목받았다. 이번 <영웅>은 기다란 장대를 이용한 작업으로 공원안의 존재감을 보일 것이다. 재미작가 김청윤의 철제 작품<무제>는 단순 구조로 고독한 현대인의 초상을 연상시킨다. 인체의 기본은 골격이다. 즉 직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김청윤의 작품은 직선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강한 인상을 자아낸다. 창원 작가의 경우, 공모를 통해 박영선과 백인곤의 화강석 작품이 영구설치 된다.

외국 작가의 경우, Wim Delvoye(웬 델보예)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벨지움 대표작가로 참여한 바 있다. 그의 작품은 정교한 디자인과 구조적 특징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철판 재료의 레이저 커팅에 의한 다양한 구조는 주특기이다. 그것도 트럭, 불도저, 시멘트 믹서 같은 바퀴가 있는 차량 형태는 눈길을 끈다. 바퀴는 인류문명 발달사에서 획기적 발명품으로 꼽혀오고 있는 문명의 이기이다. 델보예는 이들 차량 형태에 정교한 문양을 넣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세밀하면서도 좌우 대칭에 의한 레이저 커팅 문양은 감탄사를 연발시킨다. 디자인 가운데 고딕 스타일은 신성과 세속의 상징성을 자아낸다. 그의 작품은 건축과 기계의 형식을 빌려 현대적 감성을 자아내는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번 영구설치 작품<콘크리트 믹서(Concrete Mixer)>는 델보예의 대표적 작품 계열로 현대 입체작품의 또 다른 면모라 할 수 있다.

미르치아 드미트레스쿠(Mircia Dumitrescu)는 루마니아의 대표 조각가이다. 그는 목조작업에 의한 인체형상을 즐겨 표현했다. 수도 부카레스트의 대표적 조형물이라든가, 특히 문학박물관 진열의 문인 초상작품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루마니아 출신 현대작가 브라쿠시의 예술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필자가 그의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작가는 부카레스트 미술학교를 안내하면서 로비에 설치되어있는 학창 시절의 브라쿠지 인체작업을 보여주기도 했다. 루마니아는 목조건축 등 목조 문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번 설치작품<브론즈 재료의 <남자>는 두 손을 앞으로 벌리고서 있는 입상이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면서 단순한 구조여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또 다른 작품 <아담과 이브>를 표현한 <아담과 이브(Couple)> 역시 흥미로운 작품이다.

울프강 스틸러(Wolfgang Stiller)는 독일 작가로 이색적인 작업을 보여준다. 설치작품<성냥개비 세 남자(3 Matchstick men)>는 브론즈 작품이지만, 형태는 성냥개비이다. 그것도 사용한 성냥개비여서 윗부분은 검게 탄 흔적이 있다. 문제는 검은 부분 즉 성냥의 인화 물질 부분이 인간의 두상으로 표현되어 있음이다. 결국 성냥개비는 인체이고, 그곳도 발화하여 검게 탄 얼굴이라는 점이다. 이런 성냥개비 인간상이 군집하여서 있는 모습은 장관을 이루면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기성품을 재해석하여 의미를 변화시키는 작업. 성냥개비 작업은 지쳐버린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타버린 모습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상징을 자아내기도 한다. 스틸러의 성냥개비 작업에서 중국 인형극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

폴 샬레프(Paul Chaleff)는 뉴욕 거주 도조 작가이다. 그는 흙이라는 물성(物性)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추상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도(意圖, Intention)>는 어떤 '목적'을 보이는 단순 구조이다. 서 있는 두 구조는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하여 관객은 춤추는 모습, 씨름하고 있는 모습, 밀어를 속삭이는 연인의 모습 등 다양한 연상을 할 수 있다. 형식상 현대도조(陶彫)의 특성을 충실히 보여주는 작업이다.

3. 고정관념에 주석 달기- 본전시 <파격>

창작은 고정관념에의 도전이라는 숙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의 목 말음, 여기서 창작의 길은 열린다. 그래서 도전 의식은 돋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도전만이 능사는 아니다. 성경에 태양 아래 새것은 없다고 했다. 인간의 창조행위는 중국식 표현에 의하면, 주석(註釋) 달기 정도이다. 원문 그 자체를 흔들기보다 주석의 형식으로 이견을 점잖게 다는 정도이다. 그래서 품격을 지키면서 새로운 견해를 추가하기도 한다. 여기서 파격(破格)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고정관념에의 행동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은 파격의 길 즉 주어진 궤도로부터의 이탈을 꿈꾸면서 새로움을 추구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석 달기 정도가 아니라 본문 자체를 철폐하기도 했다.

일월오봉 병풍은 조선왕조의 왕권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의 권좌 뒤에 일월오봉 병풍을 둘렀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권력. 조선왕조는 어떻게 이미지를 권력의 상징으로 활용했을까. 일월오봉도는 18세기 정조에 의해 파격으로 무너진다. 정조는 책가도를 용상 뒤에 설치했다. 학문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 궁정회화는 형식적으로 채색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은 오방색을 기본으로 한 원색 숭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원색의 궁정회화는 점차 민간으로 퍼져 이른바 민화라는 형식으로 조선시대 말기의 대표적 장르로 발전되었다. 이들 작품의 특징은 형식적으로 채색화하면서 내용적으로는 행복추구의 길상화(吉祥畵)인 우리 민족의 국화(國畵)이다. 현대미술의 파격. 그렇다면 전통적 권력 상징이었던 일월오봉 병풍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는 불가능할까. 더군다나 파격을 주제로 내세운 전시에서의 파격은? 고민의 결과, 전통이라는 고정관념에 새로운 '주석'을 달기로 했다. 바로 일월오봉 병풍의 거꾸로 걸기이다. 발상법의 대전환이다. 전시공학의 이익제기와 같다. 일월오봉도는 하늘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고 그 아래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또 그 아래는 일령이는 파도가 있다. 성산아트홀 첫머리에 거꾸로 선 일월오봉 6곡 병풍(오순경 작품)은 '파격' 전시의 상징적 도상이기도 하다.

<파격> 전시의 특성은 표현재료와 기법의 확장과 작품 내용에서의 담론 제시 혹은 이의제기이다. 불각과 균형이라는 상호 모순적 개념을 바탕으로 둔 새로운 시도에 방점을 찍고자 한 결과이다. 현대미술의 표현형식은 너무 다양하다. 여기서 재료적 측면에서 다소 이색적인 재료 활용을 주목하고자 한다. 주류 미술계에서 애용하고 있지 않은 표현재료,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황재형은 광부 화가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리얼리즘 유화는 광산촌의 인간과 자연을 생생하게 담아 감동의 폭을 넓혀 왔다. 그런 유화가가 '생똥맛게' 머리카락으로 그림을 '그렸다'. 태백의 미장원 등에서 수집한 머리카락으로 캔버스에 하나씩 부착 시켜 다양한 형상을 표현했다. 하얀 바탕에 검은 머리카락은 일견 수목화처럼 보인다. 얼마나 정교하게 머리카락을 부착시켰는지 그 기법과 공력에 놀랄 지경이다. 머리카락은 인체의 일부이다. 작가는 머리카락으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했다. 파격이다. <새벽에 홀로 깨어- 세월호 어머니>는 신라 최치원의 시에서 따온 제목 아래 세월호 희생자의 어머니 모습을 담은 것이다. <원이 엄마 편지>는 요절한 남편의 무덤에 넣은 조선시대 여성(원이 엄마)의 심금을 울리는 편지와 더불어 '부장품'으로 넣은 머리카락 신발을 표현한 작품이다. 머리카락이라는 재료로 작업한 배경을 알려주는 작품이다.

안중대의 <실상>은 고구마에 사람 얼굴을 조각하여 말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색적인 작업이다. 안중대는 설치작업으로 말린 식물을 비롯해 실, 솜, 쇠, 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그는 금이나 은과 같은 비싼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변하는 흔한 재료를 선택한다. 변화과정을 주목하면서 작가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화두를 염두에 두게 한다. 임옥상의 <민들레 꽃씨, 당신>은 캔버스 위에 흙이라는 이색재료를 활용하여 그린 작품이다. 임옥상은 이미 땅과 흙이라는 재료를 주목한 바 있고, 특히 논밭 위에서 작업하고 종이 부조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흙이라는 재료. 이번 작품은 배경을 생략하고서 있는 인물을 담은 작품이다. 김민정의 작품은 한지를 작은 원형으로 오려 그 가장자리를 태워 검은 선을 살린 것을 화면 가득 부착한 작업이다. 한지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작품이다. 김민정은 단색조 분위기의 평면작업과 함께 유리를 이용한 입체작업을 겸한다. 측면에서 보면 빈 곳이지만 위에서 보면 원형 도상이 보이는 작업이다.

오원배의 <무제>는 판넬 위의 프레스코 작품이다. 유럽 미술의 특징을 보인 프레스코 기법. 작가는 프랑스에서 프레스코 기법을 수학한 후 귀국하여 다수의 프레스코 작품을 선보였다. 심지어 사찰에서 후불벽화를 서구식 프레스코 방법을 응용하기도 했다. 출품작은 작가 특유의 건축적 구조와 부유하는 인체를 한자리에 담은 작품이다. 임채욱의 사진 작업<인수봉>은 사진용 인화지 대신 전통 한지를 사용한 사진 작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화지와 달리 한지는 구길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 입체 부조작품처럼 설치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수봉은 서울 시내에서도 보이는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다. 우뚝 솟은 바위산, 수직 벽의 인수봉, 그 괴체감을 우물투물 입체감의 한지에 담은 독특한 사진 작업이다. 이 작품은 작품 뒤에 스마트 조명을 설치하여 관객의 위치에 따라 음악 소리와 빛깔이 변한다.

정고암의 <삼죽오>는 벽면용 입체 설치작품이다. 원래 정고암은 석재를 활용한 전각작가였다. 그는 '새김미술' 운동을 펼치면서 전각 혹은 문자의 현대화 작업에 앞장섰다. 이번 작품은 전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문양과 전각 혹은 부착한 '세발 까마귀'의 태양을 상징했다. 사각기둥 형식의 부조 설치작품과 영상작품을 함께 출품한다. 송창의 <정원>은 아이론 판 위에 그림을 그리고 오브제를 부착했다. 분단의 상처를 즐겨 표현한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하여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영혼을 위로하면서 화해의 굿마당을 담았다. 이주원의 <길에서 조우하다- 나의 집>은 한지에 아크릴로 도상을 만들고 그 후면에 LED를 장착하여 화면 색상의 변화를 도모했다. 한지와 조명의 조화이다. 작가는 평소 '집'에 관심을 두어, 특히 방랑자의 집을 주목했다. 이번 출품작은 몽골의 천막집과 같은 형태의 도상에 색깔을 넣어 변화감을 부여했다.

김태은은 미술재료로 익숙하지 않은 소금을 활용한 이색 작업을 보인다. 소금은 '소금에 절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존의 의미, 또 청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태은은 소금만 가지고 안중근 초상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이미지를 만든다. '소금 초상화'는 이색 작품이다. 하태범의 알루미늄 재료의 부조 작업으로 사회성 짙은 주제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다. 백승수는 스티로폼을 활용하여 도상을 만드는 이색재료 활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정광화의 작품은 석고가루의 분진 형태 위에 석고 미니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설치작업이다. 이들 석고 가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굳어가고, 미니카는 부서진다. 이런 설치 위에 안개는 계속 생기면서 시간성을 환기한다. 관객참여의 작품으로 관객은 안개 속을 거닐면서 안개의 형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서용선의 <관계>는 목조 조각 위에 색채를 올린 작품이다. 거칠게 표현한 인물 표현,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의 권력 지향과 소비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군상. 그래서 단순하고 거칠게 인체를 표현했다. 진기종의 <자유의 전사>는 사실적으로 표현한 군인들이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는 형상이다. 이들 전사는 무기를 들고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가톨릭 신자인 미 해군 특수부대원과 이슬람 신자인알 카에다 부대원. 이들은 마주 보고 앉아 대치중에 있다. 물론 겉으로는 자유를 외치고 있다. 이 작품은 사실적 표현 기량으로 리얼리즘 작품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율가의 입체작품은 개를 소재로 한 작업이다. 원래 그래피티 형식의 작업을 하는 화가의 입체 작업이다. 손정희의 <플레이 보이 맨션>은 도조 작품으로 여성성을 강조한 작업이다. 김창환은 철근과 스테인리스스틸의 상어 형상을 설치한 작품이다. 배중헌의 설치작업은 '낮은 건물속의 산수라' 할 수 있다. 작가는 도시의 반 지하 건물에 살면서, 시멘트 자국 등 건축적 흔적을 주목하게 되었다. 낮은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뭔가의 흔적은

도시 속의 산수화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하여 작가는 도시 속에서 감상하는 산수화를 미술관 안으로 이동시켰다. 풍자와 해학의 정신, 그러면서도 비판의식이 살아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강애란의 <대한제국의 빛나는 날들>은 고종을 비롯한 조선왕조의 자료들을 라이팅북 형식으로 설치한 작품이다. 작가는 그동안 디지털북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면서 책이라는 소재를 탈물질화하여 의비변환을 기도했다. 책 형태의 색채와 빛을 활용한 구조의 집적은 신비스러운 정도의 이색 체험을 하게 한다. 한승구의 <피부의 피부>는 동식물의 보호 기능인 미미크리(mimicry)를 원용하여 작업한 것이다. 위장과 위협의 기능을 수용한 작품이다. 임흥순의 <북한산>은 탈북 여성의 북한산 산행을 담은 비디오 작품이다. 남한에서 가수 생활을 하는 젊은 여성을 통하여 남북문제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룬 작품이다. 임흥순은 기왕에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영상작업으로 일가를 이룬 작가이다. 손봉체의 <금강산도>는 폴리카보네이트 바탕에 유화로 금강산을 그린 독특한 구성의 대작이다. 작가는 변방 사람을 주목했고, 또 이주민을 형상화했다. <금강산도>는 12폭 대작으로 LED 장치를 두어 매체의 활용을 시도한 작품이다.

쿠이 시우웬(Cui Xiuwen)은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한 여성 작가이다. 그의 비디오 작품<재생>은 무채색 기조로 분절된 영역을 보여 이미지의 최소화를 지향했다. 패턴의 반복작용을 통해 소멸과 재생의 의의를 제고시키고 있다. 작가는 이번 비엔날레 개막 직전 작고하여 창원 비엔날레 출품작이 공식 유작이 되는 불행을 안았다. 미야오 샤오천(Miao Xiaochun)은 자이로 댄스(Gyro Dance)의 무용수를 3D 스캔으로 제작하고 디지털 형태로 변화시킨 작품이다. 흥미로운 인체 형상의 율동은 미디어를 활용한 색다른 시각체험을 불러 준다. 이이남의 특별코너. <명칭회화 크로스오버>는 모니터 5대를 사용하여 중국 고전 회화를 활용하여 움직이는 변화를 주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높이 5m가 넘는 기다란 설치작업이다. 밤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고전 회화-해피니스>는 전통병풍 형식의 움직이는 도상 작품이다. 이이남의 동영상 작품은 현대기법을 활용한 전통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필요로 한다.

판화가 홍선웅은 80년대 이후 목판화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실사회를 주제로 한 작업과 별개로 서정성 짙은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작품<백령도-종이학>은 2010년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이 침몰하는 등 남북 대치사건을 다룬 것이다. <제주 4.3 진혼가>는 제주의 국가폭력에 해당하는 1948년 제주 4.3사건을 진혼(鎭魂)의 입장에서 만든 목판화이다. <산다화(山茶花)>는 서정성 짙은 작품이다. 소녀는 차를 마시고 있고, 주위에 산수유, 매화, 산다화(동백)가 만발하였다. 화제(畫題)에 '시 한 수 지으려고 여기저기 샅샅이 살폈더니 눈 속에 산다화가 붉게 피어 있었네.' 제주 4.3과 천안함을 거쳐 산다화로 이어온 홍선웅의 목판은 우리 시대의 단면이다. 김준권의 <풍경>은 유성다색 목판화이다. 붉은 보리밭을 소재로 한 정교한 칼질의 이색 작품이다. <산운(山韻)>은 우리 국토의 모태를 표현했다. 첩첩산중의 능선 그리고 양측에서 떠받드는 산자락 형상은 바로 곡신(谷神)의 대지 즉 자궁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48개의 판목을 이어 제작한 대작이다. 특기 사항은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을 장식했던 '역사적 작품'이다. 목판화의 승리. 이번 비엔날레 출품작으로 포토 존을 염두에 두는 작품이다. 폴란드 판화작가 크리스토프 슈마노비츠(Krzysztof Szymanowicz)의 경우도 눈길을 끈다. 윤영희의 <비상>과 <광화문>은 봉황 같은 서조(瑞鳥)를 중심으로 하여 생명성을 표현했다. 새는 모란과 같은 '귀한 꽃'이 아닌 호박꽃을 뿔어내며 광화문을 굽어보고, 아니 살피고 있다. 윤영희의 작품은 전통 채색화를 바탕으로 하여, 즉 민화의 현대적 접근에 의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전통 채색의 길상화는 우리 민족의 회화로 현대성을 가미할 때 폭발적인 위력을 얻을 것이다.

이정교의 설치작품은 성산아트홀의 로비를 이용한 이색작업이다. 전시실 문과 계단 등 시각적 안정감을 앗아가는 로비를 커튼 형식의 색깔 오브제를 활용하여 공간 성격을 새롭게 구성했다. 그의 공간조각은 오브제의 결합으로 차이와 연속에 의한 장소/비장소, 의식/무의식, 존재/비존재 등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공간 해석을 새롭게 자극한다.

비엔날레 개막행사는 용지공원 포정사 앞의 임시무대에서 펼쳐진다. 특별공연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혹은 불각의 균형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우리 천연염색의 전통이다. 통도사의 성파 방장스님은 일찍이 전통 천연염색을 주목하고, 작품 활동과 더불어 염색기법의 교육에도 주력해왔다. 무엇보다 매년 봄 서운암 산자락에서 펼쳐지는 전통염색 축제는 문화 활동의 하나로 이목을 끌었다. 이에 포정사 무대는 천연염색 천들로 지붕을 만들어 출렁거리는 원색의 특별공간을 만들 것이다. 특별퍼포먼스, 바로 '염색+춤'이다. 춤꾼은 천연염색 웅덩이를 들락날락하면서 춤을 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얀 옷은 원색으로 물들게 된다. 즉흥 염색. 천연염색 퍼포먼스는 시각적 장관을 연출할 것이며 '전통문화다시 보기' 차원에서 흥미를 이끌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운암 염색반과 음악가 이반 팀의 협업은 '유어에마당'을 빛나게 할 것이다.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는 '불각의 균형'과 '파격'으로 새로운 미술문화에의 시도이다. 조각공원에 '놀이'의 개념을 넣어 '즐길 수 있는 조각'을 강조했고, 또 고정관념에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파격'을 주목하고자 했다. 일월오봉 병풍 거꾸로 걸기와 같은 이의제기는 논란의 대상일수 있다. 앞의 파도는 뒤에서 오는 또 다른 파도에 의해 밀려난다. 이 땅에 영원한 존재는 없다. 그래서 변화 과정은 더욱 소중하다. 현장에서 펼쳐지는 염색 퍼포먼스는 상징성을 뚝뚝 안길 것이다. 일기일회(一期一會)라 했다. 이 순간은 내 생애 단 한 번뿐이다. 그 한 번의 순간을 위해 예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비엔날레는 이런 문제를 고민한 결과의 소박한 보고라 할 수 있다.

2018 Changwon Sculpture Biennale 추진계획

Artistic Director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 2016 광주세계문화엑스포 예술총감독
- 2011 한국큐레이터협회 회장
- 가천대 예술대 교수
- 광주비엔날레 책임 큐레이터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창립 회장
- 미사우스플로리다대 객원교수
- 광주비엔날레 특별 프로젝트 책임 큐레이터
- 동국대 박물관 연구원
- 미술과생활 기자
- 계간미술 기자
- 호암갤러리 큐레이터
- 가나아트 주간
- 예술의전당 미술부장
- 우리미술문화연구소 소장
- 한국미술문화진흥기법의 위임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한국큐레이터협회장
- 박수근미술상 운영위원장
- 경주술가미술관 개관 총감독
- 동양미술사학회 회장
- 고암미술연구소 소장
- 이응노미술관 개관 팀장
-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운영위원장
- 등 역임

목 차

- 1) 행사 개요
- 2) 행사 구성
- 3) 주요추진 일정
- 4) 개막행사
- 5) 전시행사
- 6) 학술행사
- 7) 부대행사
- 8) 홍보계획
- 9) 예산 집행계획(안)
- 10) 행정사항

1) 행사개요

행사명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행사주제	주체의 균형
행사기간	2018. 9. 4. ~ 10. 14.(41일간)
행사장소	창원 용지공원(포정사, 호수공원), 성산아트홀 등
참여작가	국내외 작가 100여명
행사내용	개막식, 야외 및 실내 전시, 학술행사, 시민참여 및 부대행사
소요예산	총 17억원 (국비 5억, 시비 12억)
예술감독	윤 범 모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주최/주관	창원시 / 창원문화재단

1) 행사개요

불각의 균형 不刻의 均衡

The Balance of Non-Sculp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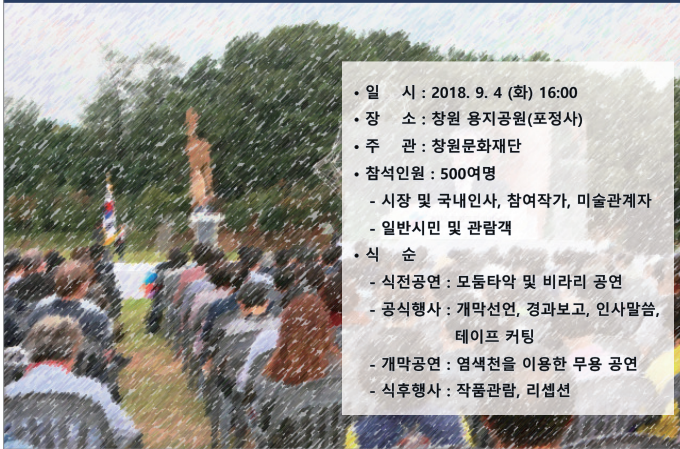
김종영의 문인정신이 함축하고 있는 '불각(不刻)'과 문신의 균제, 조화, '균형'의 정신을 결합한 < 불각의 균형 不刻의 均衡 >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를 펼쳐가고자 한다

- 불각은 원초성 혹은 정체성을 지향하고, 균형은 모순과 질곡의 사회에서 상호 균제를 지향
- 자연스러운 조형성과 현실을 감안한 사회성을 기본축으로 하여 입체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
- 표현 매체와 방법의 확장과 서사성 혹은 문제제기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 작품 주목

2) 행사구성

행사구분	행사내용
개막식	· 식전공연, 본행사, 개막 퍼포먼스
전시행사	· 본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공원(포정사) : 국내외작가 20명(지역작가 포함) - 성산아트홀 : 국내외작가 34명
	· 특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시립문신미술관 : 문신, 실비아 알드&김포 - 창원의 집 : 미디어 파사드(백남준 아트센터)
학술행사	· 키퍼런스 · 학술세미나 · 토요담론
부대행사	· 시민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도시예술산책 - 창원시민의 참여(커뮤니티 아트) - 아티스트 워크숍 - 도슨트 프로그램
	· 기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참여작가 및 작품배너 전시 - 비엔날레(路)놀장(長)

4) 개막행사



- 일 시 : 2018. 9. 4 (화) 16:00
- 장 소 : 창원 용지공원(포정사)
- 주 관 : 창원문화재단
- 참석인원 : 500여명
 - 시장 및 국내인사, 참여작가, 미술관계자
 - 일반시민 및 관람객
- 식 순
 - 식전공연 : 모듬타악 및 비라리 공연
 - 공식행사 : 개막선언, 경과보고, 인사말씀, 테이프 커팅
 - 개막공연 : 염색전을 이용한 무용 공연
 - 식후행사 : 작품관람, 리셉션

5) 전시행사



행 사 구 분	행 사 내 용
본 전 시	용지공원(포정사) 不刻의 균형, 遊於藝(유어예)
	성산아트홀 파격
특 별 전	특별전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遊於藝(유어예) 용지공원(포정사)
	미디어 파사드 창원의 집

● 전시 방향

- 전시공간을 시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상과 예술의 밀착을 실현하고자 하는 비엔날레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함.
- 창원시민의 휴식처이자 생태공원인 용지공원(포정사)에 녹림과 어울리는 영구 및 임시 작품 설치
- 창원 내 대표 전시 공간들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다양한 작품 전시

5) 전시행사



<전시 구성도>

5) 전시행사(본 전시)



■ 용지공원(포정사, 호수공원)

주 제 : 不刻의 균형

“자연스러움의 조형성과 현실의 사회성을 기본축으로 입체예술의 다양성 제시”

• 기 간 : 2018. 9. 4 ~ 10. 14 (41일간)

• 작품장르 : 야외조각, 스트리트 퍼니처, 수상조각, 가변설치 등

• 참여작가 및 작품 : 30여명 / 30여점 내외

- 국내의 유명 작가 20인 이내, 창원 지역작가 10인 이내

- 영구설치 15점 이내 / 임시설치 15점 이내

• 내 용

- 불각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조형성과 더불어 동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담은 조각의 영역을 확장하는 입체예술의 다양한 양태와 담론을 제시

- 창원대표 공원인 용지공원(포정사)을 배경으로 한 인터랙티브 중점을 둔 조각놀이터(遊於藝)를 현대조각으로 구현함으로써, 적극적인 관람객과의 소통으로 예술의 대중적 향유 및 공유 기회 제공

5) 전시행사(본 전시)



<행사장 전경>

5) 전시행사(본 전시)



■ 실내전시 (주제전)

주 제 : 파격(波格)

입체 및 평면작품 전시로 조각 영역의 파격으로 새로운 표현방법에 주목한 매체 및 재료의 확장적 작품 전시

• 기 간 : 2018. 9. 4 ~ 10. 14 (41일간)

• 장 소 : 창원 성산아트홀 전시실

• 참여작가 및 작품 : 60여명 / 60여점 내외

• 작품장르 : 조각, 오브제, 미디어아트, 임시설치 등

• 내 용

- 「파격展」은 기존의 한정적 조각의 영역을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람객들과의 소통으로 세계적인 조각의 도시로서의 자리매김

- 조각의 매체 및 재료의 확장적 작품, 영상 작품 등 새로운 담론 제시

5) 전시행사(본 전시)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행사장 전경>

5) 전시행사(특별전)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 실내전시 (주제전)

주 제 : 김중영 & 문신 / 실비아 왈드 & 김포 특별전

▪ 기 간 : 2018. 9. 4 ~ 10. 14 (41일간)

▪ 장 소 :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 참여작가 : 김중영, 문신, 실비아 왈드, 김포(김보현)

▪ 내 용 : 창원 대표 조각가 김중영 & 문신과 미주 1세대 화가 창녕출신 김포(김보현) & 실비아 왈드 부부 예술가 조명



<행사장 전경>

6) 학술행사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컨퍼런스

- 주 제 : "공공미술현장의 문제점과 대안(가제)"
- 일 시 : 2018. 9. 5 (수) 15:00 -
- 장 소 : 창원대학교 NH인문홀
- 참석인원 : 300여명
- 내 용 : 국내외 공공미술현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제점과 대안 제시

국제학술심포지움

- 주 제 : 김중영 & 문신의 예술세계 재조명 (가제)
- 일 시 : 2018. 10. 4 (목) 15:00 -18:00
- 장 소 : 창대학교 NH인문홀
- 참석인원 : 150여명
- 내 용 : 김중영, 문신의 예술세계를 중심으로 창원조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 제시

토요 담론

- 주 제 : '주체(불각)의 균형 <용역의 파격, 형식과 매체의 확장>
- 기 간 : 2018. 9. 8 (토) ~ 10. 14 (일) 중 매주 토요일
- 장 소 : 성산아트홀 전시실 휴게실 (2층)
- 참석인원 : 50여명
- 내 용 :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국내외 대표 참여 작가와의 만남

지역 문화기획자 양성 워크숍

- 기 간 : 2018. 7월 - 8월
- 장 소 :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
- 참석인원 : 50여명
- 내 용 : -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문화인력 발굴
-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부대행사 커미셔너로 참여 기회 제공

6) 학술행사(시민참여 프로그램)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2018 도시예술산책 시즌II

- 기 간 : 2018. 4월 - 7월 중 매월 마지막 토요일
- 내 용 : - 역대 비엔날레의 대표적 문화자산을 중심으로 정체성 알리기 및 도시 즐기기
- 창원 대표 조각공원을 중심으로 도슨트 프로그램 및 아티스트 워크숍 진행
- 환경정비 및 프로그램 참여로 참여 청소년 자원봉사 접수 부여 혜택 제공

초크아트 페스티벌_창원을 그리다

- 기 간 : 2018. 5월
- 장 소 : 창원 성산아트홀 중앙광장 및 가로수길
- 내 용 : -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성공기원 지역 작가 및 시민참여 이벤트 추진
- 행사주체 설정 및 전문 작가준과 시민 참여준으로 구성

창원시민의 추억 조각 커뮤니티 아트

- 기 간 : 2018. 7월 - 9월
- 장 소 : 창원 용지호수 공원
- 내 용 : - 시민들의 물건(플라스틱 제품)을 모아 설치작품 제작 전시
- 시민참여 유도 및 사전홍보 효과

현장 이벤트 행사

- 기 간 : 사전 또는 행사기간 중
- 장 소 : 창원 용지호수 공원
- 내 용 : 관람객 참여유도를 위한 체험지 및 스탬프 투어 등

7) 부대행사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아티스트 워크숍_상설체험 프로그램



- 기 간 : 행사 기간 중 상설 또는 주말
- 장 소 : 창원 용지호수 및 포정사 공원
- 내 용 : - 나도 조각가: 클레이, 절개, 재발을 폐품 등을 이용한 조각 만들기 체험
- 아티스트 워크숍: 손봉재, 하태범, 지역작가

상시 도슨트 프로그램



- 기 간 : 2018. 9. 4 (화) - 10. 14 (일) / 전시기간 중
- 장 소 : 창원 문화공원(표정사, 용지호수), 성산아트홀
- 내 용 : 야외 및 실내전시 관람자 편의 및 작품해설을 위한 상시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7) 부대행사(기타 부대행사)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2018 참여작가 및 작품 배너 전시

- 기 간 : 2018. 9. 4 - 10. 14
- 장 소 : 창원 용지공원(표정사, 호수공원) 일원
- 내 용 : 2018 참여작가 및 작품 배너 제작 게시

창원 「판」 페스티벌

- 기 간 : 2018. 9. 8 - 10. 14 기간 중 매주 토, 일 및 공휴일
- 장 소 : 창원 용지공원(표정사) 및 성산아트홀 일원
- 내 용 : 창원조각비엔날레 시민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창원문화재단의 「판」 페스티벌 병행 추진

기타 부대행사

비엔날레 "프리마켓"

- 기 간 : 2018. 9. 8 - 10. 14 기간 중 매주 토, 일 및 공휴일
- 장 소 : 창원 용지공원(표정사) 및 성산아트홀 일원
- 내 용 : 시민 참여와 불거기 제공을 위한 프리마켓 운영

8) 홍보계획



대상 유형별 홍보	미술가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전문 잡지 및 웹페이지 홍보 : 아트가이드, 퍼블릭아트, 유송 등 - 지역 미술전공 관련 대학들과 연계 및 참여 유도
	일반대중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제작 및 참여형 워크숍을 통한 이슈화 - 언론매체 및 인세를 제작 홍보 : TV 및 신문 광고, 홍보탑, 현수막, 포스터 제작 배부 등
시기별 홍보 전략	비엔날레 상설 홍보부스 운영 → 사전홍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엔날레의 정확한 의미와 목적, 전국 비엔날레 행사정보 소개 - 지난 창원조각비엔날레 및 창원의 대표 조각가 재조명 -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참여 작가 및 작품 소개
	월 단위 및 이벤트성 홍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관련 이벤트를 기획 활용 ⇒ 비엔날레 홍보 및 이슈화
지역별 홍보 전략	극제 및 전국단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엔날레 홈페이지 제작 및 창원문화재단 SNS 활용 - 중앙 언론 및 미술전문 잡지 관계자 사전 홍보 브리핑
	지역 홍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요 언론 및 문화담당 기자 사전 브리핑 - 교통 및 재난안내 등 주요 전광판, 공식 SNS 등을 통한 행사정보 전파 - 도내 관련 대학 및 미술관, 갤러리 홍보 - 초중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단체관람 및 참여 유도

9) 예산 집행계획(안)



항목		예산액	산출내역	(단위: 원화)
보상금	국비	500,000	아외영구설치 : 50,000원 × 10명 = 500,000원	
	시비	25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자 및 기념품 : 5,000원 × 10명 = 50,000원 • 입찰전시 : 국내외 작가 50명 × 10,000원 • 특별전시 : 30,000원 • 계약의 세부요소 : 1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티스트워크숍 작가보상금 : 50,000원 • 학생행사 참여자 보상금 : 15,000원
보상금 (기타 보상금)		10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록 및 공제이력 : 60,000원 • 외딴포장(상여가조명등) 대여 : 40,000원 • 지원행사자 식비보상금 : 5,000원 	
임차료		34,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및 공제이력 : 60,000원 • 행사용품(현역, 의자 등) 임대 : 6,000원 • 작품전시 장비임차 : 7,000원 • 실내 작품연출 기기임차 : 3,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기 및 사무기구 임대 : 7,400원 • 개막식 및 축선심포지엄 배스 임대 : 1,000원
시설비		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전시실(전시, 의자 등) 임대 : 132,100원 • 기념품용 현수막 : 20,000원 • 작품전시 장비임차 : 7,000원 • 작품 보존 및 사후 조영공사 : 20,000원 	
기타 직보수		159,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지원관장 및 직원 : 132,100원 • 기념품용 현수막 : 20,000원 • 국내여행(주인공행회 포함) : 10,000원 	
여비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조영실 및 참여작가 과선선 : 5,000원 • 추진위원회, 기자간담회, 참여작가 작품설명, 학술행사 관계자, 추진단 급식 등 : 5,000원 	
광고요금 및 제세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발송비 : 5,000원 	
일반수용비 (홍보비)		11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미술전문잡지 홍보 : 33,000원 • 중앙지, 일간지, 지역신문사 광고 : 30,000원 • SMS 문자발송비 :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비(포스터, 도록, 공간, 홍보물 등) : 20,000원 • 옥외홍보물(홍보탑, 현수막, 배너 등) : 30,000원
일반수용비 (단체비)		5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폰스터 및 리플렛 : 16,000원 • 도록 : 25,000원 • 초장 및 기타 자료 인쇄 : 10,000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37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 계약서, 학술행사 운영 : 27,000원 • 후원행사 및 시연행사 프로그램 : 30,000원 • 전시장(여) 사진촬영, 상차, 간담회 : 50,000원 • 작품전시 및 사후 : 200,000원 • 행사운영비 및 각종 반역료 : 4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운영비 및 행사기록 : 15,000원 • 옥외홍보물(홍보탑, 배너 등) : 3,000원 • 아트상품 및 유선류 제작 : 10,000원 • 협조유치비 : 2,000원
합계		1,700,000		

불임 참여 작가군 [섭외대상] 리스트



불임 참여 작가군 [섭외대상] 리스트



Wim Delvoye (벨기에)



Paul Chaleff (미국)



Phillip King (영국)



Not Vital (스위스)

불임 참여 작가군 [섭외대상] 리스트



조숙진



이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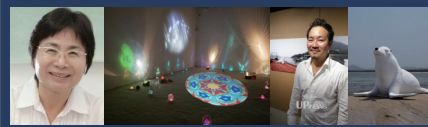


이인범



김병기+김청운

불임 참여 작가군 [섭외대상] 리스트



안중연 + 양구라



구본주



오재현



임영선



윤영석

윤범모의 발제 ‘2018창원조각비엔날레’에 대한 질의

강주연(창원미술협회장)

창원의 조각비엔날레

김종영 선생님의 ‘깎기’는 깎지만 깎지 않은 것 같은 상태인 불각의 미학이고, 문신 선생님의 예술계는 균제, 대칭, 균형의 조화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거장의 예술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불각의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2018년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출발하였습니다.

실외전시는 주제 “유어예”의 마당 - 예술과 함께 놀기를 통해 예술작품이 시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쉬고, 놓고, 잘 수도 있는 어울림의 공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대중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실내전시는 “파격”이라는 주제로 재료와 표현형식의 고정관념을 깨는 실험적 시도를 선보였고, 비디오 작품과 많은 외국 작가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천연 염색 퍼포먼스를 이슈로 한 개막행사는 21세기에 우리의 전통을 문화생활로 접할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내용상으로 2018년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알차고 의미 있는 전시였다고 모두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은 이런 전시가 창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원에서만 할 수 있는, 창원이라는 곳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국제전시. 아! 창원이니까 저런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작품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기도 하였습니다. 예술에서의 파격이란 의미구현과 예술과 함께 놀기의 조화를 보여 주신 발제자님께 창원미술협회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의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제자님께서 당시 창원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시를 기획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었는지 말씀해주시면 작년도 비엔날레에 대한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지역에서 독특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미술행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지역 미술행사의 경쟁력을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는지 발제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